

성경 사경회



2023년 7월 29-31일

강사: 정동수 목사

부산제일성서침례교회

성경 사경회 자료 목차

1. 구원 -----	1
2. 개역성경과 킹제임스 성경 -----	15
3. 교회 -----	41
4. 예배 -----	47

내 주는 강한 성이요(384장)

1.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2.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만드시 이기리로다
3.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대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구원

성경말씀: 벧후3:9

1. 인류는 어디로 나아가는가?

바쁘게 사는 사람들: 2010년 현재 인구 68억 명

초당 4.4명 출생, 1.7명 사망

계속 들어나도 감당이 될까?(식량, 환경, 자원 등), 지구는 계속해서 돌아갈까?

인구의 최대 한계; 85억 명, 2050년에 94억(2009년 8월 13일 연합뉴스)

화석 연료, 2050년이면 한계에 이른다고 보고되고 있다.

과연 종말은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말한다.

예수님의 초림은 성경기록대로 이루어졌다.

수십억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분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였다.

성경기록대로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확신의 대상

-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대비해야 하는가?

2. 우리 주변의 문제들

1. 재난: 아이티 지진(1월), 20만 명 이상 사망, 지진의 강도와 빈도가 늘고 있다.
2. 기근: 아프리카, 북한(수십만 명 아사, 어린이 영양실조 60%로 세계 1위)
3. 전쟁: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911 테러
4. 질병: 에이즈(사하라 남부 전 세계 에이즈의 70%), 신종플루, 조류 독감, 싸스
5. 빈부의 양극화(대륙과 대륙, 나라와 나라, 집단과 집단, 개인과 개인)
6. 창조 세계의 신음: 종의 멸망, 기후 변화(오존층, 온난화, 사막화 황사 현상)
7. 학정: 북한 독재 체제(수백만 명이 처형됨), 전 아랍권, 아프리카, 아이티
8. 문화의 저질화: 중학생 알몸 졸업식 사건, 인터넷, TV 프로그램의 저질화
9. 사악한 죄들의 확산: 동성연애, 살인, 간음
10. 진화론의 확산: 유물론, 물질만능주의
11. 인간성의 상실: 타고난 애정이 없다(낙태, 유기, 유아 유괴)
진리를 추구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다.

- 결론

사람들 안에, 지구 안에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다.

현재의 상황은 인류와 지구가 종말을 향해 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

심지어 진리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교회마저도 타락해서 세상과 하나가 되고 있다.

‘믿음을 보겠느냐?’(눅18:8)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마24:37; 눅17:26).

왜 그럴까?

3. 인류의 역사

1. 진화론은 200억 년
빅뱅: 200억년 전
지구: 50억년 전
사람과 원숭이의 공통 조상: 5천만년 전
사람: 100만년 전
2. 성경은 6천년
3. 선사 시대, 역사 시대(BC 2500년경)

4. 역사는 어디를 중심으로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지구를 보면 예전에 한 군데에 하나로 뭉쳐 있었다.

독일의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 원래 판게아라는 한 대륙에서 오대양 육대주로 나뉘었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프리카 서해안과 남미의 동해안, 유럽의 서해안과 북미의 동해안

http://cafe.naver.com/jsdnaver.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714

창10:25절은 분명히 노아의 후손인 에벨과 벨렉 시대에 지구가 나뉘었다고 기록한다.

‘에벨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었으니 이는 그의 날들에 땅이 나뉘었기 때문이더라.’ ‘...for in his days was the earth divided;’

바벨탑 사건이 일어날 즈음에, BC 4200년경

그때의 중심은 지금의 중동, 더 자세히는 팔레스타인(가나안) 땅이다.

거기에 에덴동산이 있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지금도 있다.

지금 온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 문제이다(사실 모든 문제의 핵심).

중동의 이스라엘은 구약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증거이다.

● 말세의 이스라엘(슌12:1-2)

근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랑하던 민족이 1948년 5월에 기적적으로 나라를 세웠다.

1400만 명, 세계의 재물, 학문, 예능계, 노벨상을 석권하고 있다. 하바드, 예일 대학의 25% 성전을 지으려고 한다.

아랍 사람들과의 마찰이 심하다.

미국, 영국, 프랑스와 온 유럽, 러시아, 중국 등이 있지만 결국 인류의 역사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성경에 기록된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진행되고 있다.

BC 550년경의 다니엘서 2장에서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가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부활되는 로마제국을 통해 이루어짐을 보여 준다.

지금은 과거의 로마 제국이 부흥할 때이다(유럽의 부흥).

미국과 영국 앵글로 색슨족의 쇠퇴(유대인, 성경 보호)

- 구소련의 붕괴
- 유럽 연합 국가의 탄생
-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천주교 모두 아브라함에 근원을 두고 있다(전 세계 인구의 반)
- 현재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종교가 이슬람교이다.
- 911 사태, 알몸 투시 검색기
- 가장 기독교와 유대교에 적대적이다.
- 종교의 통합: 다 같은 신을 믿는다고 한다. 반기독교 연합전선

○ 결론

앞으로 이 세상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는,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

4. 사람의 가장 큰 문제

모두가 죽는다.

초당 4.4명 출생, 1.7명 사망

당신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가?

죽음만 문제가 아니다.

태어나서 조금 자라면 누구나 양심이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산다.

롬1:29-31

‘29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30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31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의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공홀이 없는 자라.’

지각이 있고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 안에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음을 다 느끼고 알고 있다.

● 결론

사람의 죽음과 양심을 통한 죄 문제를 볼 때에 사람 안에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음을 누구나 알 수 있다. ★★★

5. 기독교란?

사람들은 자기들의 양심의 문제와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 종교를 개발해 냈다.

보상 심리로 나의 잘못, 양심에 찢리는 일을 나의 선한 행위로 만회해 보려는 시도

불교, 천주교, 이슬람, 힌두교(뉴에이지)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늘에 다다르려는 시도이다.

그러면 기독교도 이런 종교 중 하나인가?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물에게 다가오는 시도이다: 개미와 사람으로 설명

기독교는 사람과 모든 창조물과 지구와 우주와 인류의 역사를 해결해 주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기독교는 인간 내면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다루며 시간에서부터 영원에 이르는 공간을 커버한다.

잘못된 기독교: 개독교와 먹사

한국의 기독교는 성경의 기독교와 많이 다르다.

시작부터 샤머니즘과 묘하게 결부되어 있다.

복 받는다, 시험 점수 잘 받는다, 일이 잘 된다 등

교회당 건물 숭배, 록 음악 등은 기독교와 상관이 없다.

매관매직(총회장, 감독, 장로...)

교회와 세상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음악, 문화, 정의구현사제단, 민주화목사, 정당대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찾기 어렵다.

그래서 교회 가서 구원받기가 대단히 어렵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된다).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마리아, 신부, 신부 노릇하는 목사, 성당 노릇하는 교회(성전 ...)

현금 갈취해서 신문사 차리고 불필요하게 건물 치장하는 곳이 아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현세에서의 인간 내면의 죄 문제와 영원한 세계에서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 혹은 그런 사람들의 모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임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모임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거룩함, 선함, 아름다움, 권능의 극치이다.

하나도 나쁜 것이 없다.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아담으로 인해 파괴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을 인간의 구원이라고 한다. ★★★

그래서 인간 자신의 구원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창조물이 신음하는 문제, 지구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해결된다. ★★★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우지고 궁극적으로 온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임이 교회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존재 목적은 먼저 영혼육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구원 세미나는 이런 스케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을 다룬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개개인의 구원에서 시작된다. ★★★

6. 구원

구원(Salvation): 구출한다. 건져 낸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의 문제, 양심의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보았다.

창조물이 신음하고 있음을 보았다.

인류의 역사가 성경대로 움직임을 보았다.

말세가 가까워 옴을 보았다.

그래서 이런 상태(죄와 더러움과 지옥에서) 구원받는 것이 필요하다. ★★★

예수님의 이름: 죄들에서 구원하시는 분

기독교 믿음의 시작은 구원받는 데서 시작된다.

개인의 구원이 없으면 교회 생활, 선행이 다 소용이 없다.

먼저 뱃속에서 나온 뒤에야 자랄 수 있다.

교회와 교회의 목사와 지도자들이 가장 크게 신경 써야 할 일: 개인의 구원 ★★★

그런데 교회가 이 일을 게을리 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인이 되기는 쉬워도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대단히 어렵다. ★★★

7. 기원의 문제

구원 문제는 기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알아야 고칠 수 있다.

●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

1.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2.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여기 있는 동안 무엇을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

3. 나는 어디로 가는가?

기원과 종착지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사람의 인생은 허무하다.

1.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언제 어디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는가?

한강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태백시 삼수동 대백산 검룡소

인간의 기원, 인간의 조상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누가 우리의 첫째 부모인가?

사람은 항상 존재해 왔는가?

사람이 없던 때도 있었는가?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인가?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내용:

사람이 존재하지 않던 때가 있었다.

지구가 존재하지 않던 때가 있었다.

● 그러면 언제, 어떻게 사람과 동물과 식물과 지구가 존재하게 되었는가?

● 인간 기원에 대한 세 가지 생각

1. 진화론:

무에서 유가 생겼다.

질서가 낮은 개체에서 종이 바뀌어 질서가 높은 종으로 진화했다.

사람은 원숭이에서 나왔다. 그러므로 사람은 짐승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 생명은 무생명에서 나오지 않는다.

종이 바뀌는 일은 없다. 이것이 참된 과학이다.

설계가 없이는 이 세상의 어떤 창조물도 살 수 없다.

종로에 가서 세종대왕상과 이순신 장군의 상을 보라.

그냥 저절로 생기는 일은 불가능하다.

2. 창조

위의 두 생각의 대안은 단 하나밖에 없다.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창조자가 사람과 동식물과 온 우주를 만들었다.

창1:1; 1:27; 2:7...

예수님의 말씀: 마19:4(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기독교와 유대교만 유일한 창조를 가리킨다. 말로만 창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믿는 자들 불교, 힌두교, 천주교(교황 바오로 2세, 1996년, 창조와 종의불변 부인), 이슬람교(기독교인들 저주, 그들만 가는 지옥이 따로 있다), 뉴에이지, 무신론
즉 이 세상에는 창조와 진화라는 두 개의 믿음 체계만 존재한다.

3. 과학자들의 증언

불신 과학자의 고백: “나는 불가능한 것을 믿는다!”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로 1967년에 생리학/의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생물학자 조지 왈드(George Wald)는 ‘Scientific American’이라는 인본주의 잡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생명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오직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 가지 가능성은 자발적인 발생 곧 진화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위이다. 세 번째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발적인 발생론은 이미 120년 전에 파스퇴르와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 불신임을 받았다. 이로써 우리에게 한 가지 논리적 귀결 즉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위로 생명이 발생했다는 결론만이 남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결론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아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믿기로 했다.”(George Wald, "The Origin of Life," Scientific American, May 1954)

4. 그냥 생겼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양심을 속이는 사람이다. 불가능을 믿는 사람이다.

오렌지, 우유, 손톱, 머리털, 눈을 보라.

하나님을 알 만한 이유를 모두에게 주셨다(롬1:18-23).

단 하나의 이유: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원치 않기 때문에

5. 창조의 증거

○ 인구 증가율: 진화론은 지금부터 100만 년 전에 인류가 나왔다고 한다.

2명에서 시작, 인구증가율 0.5%로 계산, 현재 인구: 10^{2100} 명

우주를 채울 수 있는 전자의 수: 10^{130} 개

현재 인구: 68억 명

성경은 지구와 우주의 연대를 6000년이라고 말한다.

노아의 홍수: 대격변, 온 세상이 잠김

대홍수 BC 2348년, 8명

8명 혹은 6명을 0.45% 정도의 인구 증가율 복리로 계산하면 지금의 인구가 나옴.

단군의 기원: BC2333년 노아의 홍수 이후, 바벨탑 사건의 연대와 동일함

배 주(舟)와 배 선(船), ‘한자에 담긴 창세기의 발견’(미션하우스), 흥

2.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빚자루, 냉장고, 자동차, 만들어진 것에는 목적이 있다.

그러면 당신에게도 이 삶에서의 목적이 있지 않은가?

어떻게 빚자루, 냉장고, 자동차가 생겼는가? 누가 만들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떤가?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한다(창1:26).

그러면 당신의 삶에 목적이 있음이 분명하다. ★★★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재물, 명예, 성공, 쾌락, 행복, 나 자신

이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가장 큰 목적은 사람과 교제하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고자 함이었다.

그러려면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의 특성을 가져야 한다.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이 함께 모인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셨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특권(벧후1:4) ★★★

로봇하고 놀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을 지으셨다.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다. ★★★

사람의 창조 이전에 천사들(천상의 존재들)을 지으셨다. 그들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다.

선물을 준 사람이 잘못인가? 그것을 악용/오용/남용하는 사람이 잘못인가? ★★★

아버지가 자동차를 아들에게 준다. 아들이 얼마든지 자유의지로 선용/악용할 수 있다.

하나님은 천사들과 사람이 자유의지를 선용하기를 원했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법과 죄를 짓게 되었다.

사람이 자기의 존재 목적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

그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과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이런 본래의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한다. ★★★

롬3:23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는 것이 죄다.

죄로 인해 사람과 하나님은 분리가 되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다.

3. 나는 어디로 가는가?

과거: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현재: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미래: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나그네길이요 여행이다.

목적지를 모르고 여행하면 얼마나 불안할까?

당신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는가?

● 모든 사람이 100% 확실히 가는 곳: 무덤

모든 사람이 죽는다(히9:27). 70-80세(시90:10)

사망은 지금까지 인류의 가장 큰 두려움이였다(히2:14-15).

“죽는 데 무슨 두려움이 있는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거짓말이다.

지금 암에 걸렸다는 판정을 받으면 어떨까?

전혀 떨림이 없을까?

심지어 소도 도살장에 갈 때 눈물을 쏟고 안 가려고 한다.

죽음의 경우

나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미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사망 직전에까지 간 사람들 이야기).

이 세상의 아무도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지 못한다.

A. 진화론자들의 말: 사람은 살과 피와 뼈로 된 물질이다. 죽으면 끝이다.

B. 윤회론자들은 죽어서 다른 사람이나 짐승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 소, 돼지, 벌레, 살생 금지 뉴에이지 추종자들은 상송하는 윤회만 믿는다.

이것은 진화론의 최종 단계이다.

아메바에서...사람, 그 다음은? 신이 되는 것이다(부처가 되는 것, 그리스도가 되는 것).

창3:1-4, 1.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2.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3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매 4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5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C. 기독교: 히9:27, 영과 육과 혼이 있다. 혼은 사람 그 자체이다(창2:7). 몸은 껍데기이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마10:28).

심판이 있다: 목적을 이루었는가를 재판하는 것

만들어진 모든 것에는 심판이 있다.

야구 공, 안경, 연필, 스트라이크, 볼, 상사의 심판

롬2:5-8: 5 다만 네가 네 강박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닥칠 진노를 네게 쌓아 올리는도다.

6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7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8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격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

새 예루살렘, 불 호수

8. 하나님의 해결책

1. 기독교는 왜 사람이 죽는가를 알려주는 유일한 종교이다.

왜 죽는가?

죽는 이유를 알면 살 수 있지 않은가?

창2:17; 롬5:12

사망: 분리되는 것

육체의 사망: 몸이 혼과 영과 분리되는 것

영원한 사망: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분리되는 것

아담은 죄를 지은 뒤 곧바로 육체적으로 죽지 않았다. 다만 영적으로 죽어서 분리가 일어났다.

영이 기능을 하지 못한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하다. 같이 살 수 없다.

죄와 범법으로 인해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채 태어난다(엡2:1).

길을 잃어버린 상태로 태어난다.

그래서 마음에 병이 든 채로 태어난다(렘17:9).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막7:20-23, 20 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1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22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23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인류의 모든 문제가 여기에 있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다.

의로운 자는 단 하나도 없다(롬3:10).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롬3:23).

그대로 죽으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인해 죄의 형벌을 받는다(롬6:23).

이것이 인간의 디폴트 상태이다.

2. 하나님의 치유책

인생은 짧고

죽음은 확실하며

죽음의 원인은 죄며

죄의 치료책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신 하셨다(롬8:1-4).

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2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3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4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 대신 속죄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의 종교를 보라.

모두 짐승을 잡아 피를 드려 신에게 속죄 행위를 하고 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대신 속죄가 이미 들어가 있다.

죄 없는 무엇인가가 죄 있는 사람을 위해 죽어야 한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희생 제사

짐승의 희생으로는 죄를 덮을 뿐이다.

치우지 못한다.

사람이 할 수 없다.

우주공간에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완전한 희생 예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만족시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스스로 온 인류의 죄를 덮고 죄가 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담당하셨다. 그 순간 죄가 되셔서 지옥의 형벌을 다 당하셨다.

영원한 희생 예물을 드리셨으므로 더 이상 죄로 인해 사람이 드릴 것이 없다.

그리고 사흘 동안 땅의 중심부에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4. 사람이 해야 할 일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믿는 것 외에 없다. 다 알 수 없다.

창조 세계와 양심의 증거를 통해 하나님께 반응해야 한다.

하나님의 방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베풀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셔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계시하셨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으면 산다.

어느 면에서 생명 보험과 같다.

9. 회개(Repentance)

기초가 든든해야 한다.

구원의 기초: 회개

구원의 방법: 믿음

바른 구원에는 이 둘이 항상 같이 다닌다.

전도한 사람의 숫자를 세는 일, 가짜도 있다(행8:20-21).

한 번 복음 전도에 2000명, 10,000명 구원받았다고 보고를 보낸다.

소위 영접 구원이라 불리는 방법의 문제

현대 교회의 문제: 회개가 없다, 사영리의 문제

1. 회개의 정의

Repent, repentance

어떤 일을 행한 것에 대한 유감과 슬픔과 더불어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간절한 소원이 나타나면서 마음을 바꾸어 행동이 변하는 것

성경적으로는 성령님에 의해 죄와 하나님에 대해 생각의 변화가 생겨 삶의 변화가 생기는 것
하나님, 나, 죄, 세상, 마귀, 천국, 지옥, 인생 목표 등에 대해 생각의 변화가 생겨 삶의 변화가 생기는 것

사도 바울의 회개 증언:

“내가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 사람들과 온 유대 지방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여야 함을 보이매”(행26:20)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 노라.”(행20:21)

2. 회개와 믿음

요3:16, 요한복음 전체에 회개라는 말이 없다.

행16:31

이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반드시 회개를 포함한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반드시 믿음을 포함한다.
두 개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나만 나오는 경우도 있다.

위의 두 구절에는 믿음만 나온다.

마9:13; 눅24:47; 행2:38; 3:19, 벨후3:9에는 회개만 나온다.

성경으로 성경을 비교해야지 성경을 고립시키면 안 된다.

그러므로 이런 구절들에 회개가 없다고 해서 회개가 불필요한 것은 결코 아니다.

빌립보 간수: 이미 회개했다.

요4장의 수가 성의 여인: 죄를 회개했다.

회개와 믿음은 별개의 두 가지이지만 구원에서는 하나로 작용한다.

회개만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것은 구원의 기초가 된다.

이 기초가 확고해야 바른 구원, 강건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회개는 명백하게, 확실하게 죄를 다루는 것이다.

회개가 없어서 가짜 신자가 판을 친다.

클라우드 이야기: 네팔 선교가, 힌두, 첩, 성경 공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겠다고 함.

첩 이야기를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최소한 그는 자신의 부도덕함에서 회개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성경적 회개가 있어야 한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바뀌지 않아도 됩니다. 그 뒤에 자동으로 바뀝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손을 드십시오. 영접 기도를 하십시오.” 이것은 이단 교리이다.

이것은 절대로 100%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100% 순종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다.

3. 회개에 대한 오해

1. 회개는 단 한 번만 해야 한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단 한 번만 한다(행11:18).

그러나 성도들도 계속해서 회개해야 한다(행19:18-20, 고후7:7-10, 계2:5, 16, 21, 3:19).

2.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가?

에서는 눈물을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돌릴 곳을 찾지 못하였다(히12:17; 창27:1-46).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참된 회개가 나타나며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은 죄들의 용서가 거저 주어진다(마4:17; 행3:19; 11:18; 20:21; 26:20). 따라서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회개와 믿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4. 회개 요약

성령님에 의해 죄와 하나님에 대해 생각의 변화가 생겨 삶의 변화가 생기는 것

참된 회개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야를 살해한 뒤에 나단 대언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서 발견된다(시51).

신약성경에서 침례자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는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나타났으며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말씀하셨다(눅13:3, 5).

예수님은 또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의 눈앞에서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눅 15:10).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분의 제자들은 줄곧 회개와 믿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였다(행2:38; 3:19; 20:21; 26:20).

회개가 일어난 곳에서는 악을 버리고 죽은 행위로부터 떠나는 일과(행8:22; 히6:1) 하나님을 향해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 발생한다(행20:21; 계16:9).

회개는 하나님의 뜻이며(눅15:7-10; 뱀후3:9) 동시에 그분의 명령이다(막6:12; 행17:30).

따라서 회개 없이 구원받는 일은 불가능하다.

10. 믿음(Faith)

- 명사 '믿음'(Faith)과 동사 '믿는다'(Believe)

우리는 매일 일상생활을 믿음으로 한다.

의자에 앉는 것, 자동차와 브레이크, 비행기, 음식 먹기, 엘리베이터, 다리, 개를 쓰다듬을 때 아무리 우리의 믿음이 커도 믿음의 대상이 견고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믿음은 대상이 어떤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

1. 믿음의 방법

믿음의 방법: 모든 것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한다.

엡2:8

고후5:7, 보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히11:6)

믿음이 생기려면 진리를 이해하고 동의해야 한다.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와 그 안에 들어 있는 사건들과 교리들을 이해하고 설득받아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이다. 하나님, 인간, 죄, 하나님의 구원 방법, 영원한 장소 등 성경의 계시만 믿는다.

2. 믿음의 정의

히11:1 바라는 것들의 실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실체: 기초가 되는 것,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천국, 지옥, 예수님, 성령님, 마귀, 영원한 생명, 소망

믿음이 생기는 길: 들음, 하나님의 말씀(롬10:17)

믿음의 대상: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3. 믿음의 예

히11장: 믿음의 선진들, 아벨, 노아, 에녹, 아브라함 등 구약 성도들의 믿음 한 마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히10:38).

롬1:16-17,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의, 믿음에서 믿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 성육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 기독교의 믿음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이다(히12:2).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요 왕이요 대언자요 대제사장으로 받아들이며 그분을 그런 존재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순종한다.

4. 믿음과 은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이다(롬5:2)

바로 이런 믿음을 통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죄들의 용서와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

4. 믿음과 삶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만이 믿음으로 살고 걸을 수 있으므로(막16:16; 요3:15-16; 행16:31; 요일5:10) 이런 믿음이야말로 그리스도인 삶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이기고 의의 관을 얻는다(딤후4:7-8).

바로 이런 믿음으로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은 놀라운 이적을 이루었다(히11:1-40; 행14:9; 고전13:2).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며 그분의 전능하심 속에 거할 수 있었다(마17:20; 막9:23; 11:23-24).

참된 믿음은 그것의 열매로 인하여 온 세상에 두루 알려진다(롬1:8).

5. 믿음이 아닌 것

믿음은 우격다짐으로 믿어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는 신비한 능력이나 자기 확신 혹은 소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주여 삼창!', 오순절주의의 믿음, 현금하고 원하는 대로 믿는 것

6. 믿음 정리

믿음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사랑처럼 반드시 어떤 대상을 향한 태도로서만 존재한다.

그러므로 어떤 대상에 대한 신뢰의 태도로서 그 대상이 반응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대상에 의해 결정되며 그러므로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자체가 아니라 믿는 대상이다.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믿음의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분에 대한 신뢰 태도이며 그분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 속에서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사람은 이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동시에 그 후의 삶에서도 이런 믿음으로 신앙의 여정을 걷는다. 즉 신자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여정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게 해야 한다(갈2:20).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며 믿음의 사람이다.

11. 은혜(Grace)

은혜란 무엇인가? 170회(창6:8; 계22:21)

믿음인가, 행위인가?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의 차이

롬4:1-8 설명

아이들에게 돈 주는 것, 은혜인가, 보수(빚)인가?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세상의 것들은 은혜를 알 수 없게 만든다.

“거저가 어디 있어?” “그래도 무언가 내가 좀 해야지.”

아이들과 다르다.

사람의 생명에 필수적인 것은 다 은혜로 거저 주어진다(공기, 햇빛, 태어나는 것).

영생도 마찬가지이다.

“또 죄를 지을 텐데요.” “그래 우리는 모두 실패한다.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니?”

만일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를 멈추게 한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구원에서 사람이 해야 하는 것

모든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다.

그런데 사람 편에서 그 은혜가 은혜가 되려면 상대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believe’가 나와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 의지를 방해하지 않는다.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뒤에 바른 행위가 나오는 것을 가르친다(엡2:8-10).

12. 구원의 세 단계(Salvation in 3 tenses)

1. 과거: 죄의 형벌로부터 구출 받는 것(칭의), 위치적(신분적) 구원
2. 현재: 현재 삶에서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출 받는 것(성화), 현재 삶에서의 구원, 날마다
3. 미래: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받는 것(영화), 절대적인 구원

13. 구원의 안전 보장과 확신(Assurance of Salvation)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으면 구원이 어떻게 되는가?

relationship과 fellowship

구원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

교제는 그 이후의 일이다.

고의로 죄를 지으면 관계가 서먹서먹해진다.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를 짓겠느냐?(롬6:1) 유명 인사 간증에 넘어가지 말자.

오히려 양심이 예민해져서 조그만 죄를 저도 민감하게 됨.

구원에 의심이 생기는 것은 좋은 징조

출애굽 사건, 유월절 어린양의 피

구원의 확신은 감정에서 나오지 않는다. 우리의 감정은 매일 변한다.

구원의 확신은 기록된 말씀에서 온다.

갑판에서 두 사람의 배수 파이프 이야기, 파이프 직경이 48cm,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배의 설명서가 그렇다고 하기에 안다. 바로 이 성경이 우리의 구원의 확고한 설명서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말한다.

14. 구원 받은 사람의 특징

1. 말씀을 사모한다(벧전2:2).
2. 모이기를 힘쓴다(깃털이 같은 새끼리 모이려 한다).
3.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죄를 죽이려고 애쓴다. 조그만 죄도 너무 크게 느껴진다.
죄 짐 이야기
4. 자유함이 생긴다(종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자유함).
교회에서 위협 협박하면 안 된다(봉사, 헌금, 전도, 모임 등). 갓난아이에게 어른의 일을 시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힘을 내어 사람을 변화시킨다.
5. 삶의 태도와 목표가 달라진다.

6. 선한 행위가 나타난다.
7. 좋은 교회를 찾아야 한다: 성경대로 하는 교회, 영혼의 자유가 있는 교회, 신약 교회
8. 침례를 받는다.

15. 구원 초청

구원의 초청
기차 타는 사람

16. 구원 요약

1. 필요성

모든 물건에는 그것들을 만든 존재 즉 메이커가 있습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펜, 의자, 자동차, 책 등이 모두 메이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메이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물건을 판단하여 폐기 처분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메이커가 있습니다. 물건도 메이커가 있는데 하물며 물건을 설계하는 고등 존재인 사람이 흠에서 그냥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을 만든 메이커가 그 사람이 자신의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때가 있습니다(행17:31; 히9:27). 이 같은 심판에서 부적격자로 드러난 사람은 메이커가 폐기시킵니다. 성경은 이 같은 메이커를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폐기 처분되는 것을 '유황 불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계20:10). 그러므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내게 메이커가 있는가, 없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 방해물

사람과 물건의 차이는 사람에게 자유 의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적격자로 판정내리는 근거가 죄라고 말하는데 근본적으로 죄란 '목표에서 벗어난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며 사람이 자신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유 의지를 이용하여 고의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는 그분의 목적에서 벗어나 그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롬3:23). 첫 사람 아담에게서 시작된 이 죄라는 독은 사람의 핏줄을 타고 전 인류에게 퍼졌습니다(창5:3; 롬3:10).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따라 그 이후 모든 사람에게 육체적인 사망이 임했고(롬6:23)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든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서 지옥 불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티끌만큼의 죄도 차마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합1:13). 그러므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과연 나는 죄인인가, 아닌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죄인의 정의: 죄들을 많이 졌다는 의미가 아니다.

왜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는가? 사과나무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왜 죄들을 짓는가?

왜 죄인인가? 죄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죄들을 짓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가?

아니다. 모두 죄를 짓는다.

그러면 왜 지옥에 가는가?

죄성의 문제: 죄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도토리 키 재기

3. 계획

실사 펜 공장에서 나오는 펜이 자기가 잘못되었음을 알았다 해도 자기 자신이 혹은 그 옆의 펜이 그 펜을 고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죄의 병은 똑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 즉 공자, 석가모니, 마호메트, 소크라테스 등이 고칠 수 없습니다. 펜을 설계한 메이커가 펜을 고칠 수 있듯이 사람의

설계자인 하나님 즉 사람과 차원이 다른 외부의 존재만이 사람의 죄의 독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행 4:12).

4. 확신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말을 믿습니까? 그 사람의 신실함에 근거해서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 곧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분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6).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말기 바랍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창조주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기에 우리는 그것이 진리임을 믿습니다(요14:6). 죄의 값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니라”(롬6:23).

5. 초청

인생은 마치 달리는 기차역을 향해 달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단 몇 시간을 아끼려고 열차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역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이라는 무궁한 시간을 아끼려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은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히3:13). 나이와 직업과 성별과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오늘 그 시간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베푸시는 방법을 그대로 믿고 수용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다시 태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벧전1:23).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누구나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값없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론

I. 성경(Bible)이란?

A. 성경의 정의

1. 성경을 가리키는 영어 'Bible'은 마1:1에서 '책'을 지칭하는 그리스말 'Biblos'에서 유래되었으며 5세기 이후부터 영어권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책'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책으로서 여러 책을 모은 전집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일관된 이야기(History)이며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들 즉 단어들을 담은 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성경은 약 1,600년 동안 다양한 문화와 배경과 경험과 학식을 가진 40여 명의 인간 기록자들 - 왕, 농부, 어부, 의사, 정치가, 학자 등 - 이 기록한 '한 책'(One book)이다.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을 언급할 때 '성경 기록'(마21:42; 벧후1:20), '기록한 성경 기록들'(롬1:2), '율법'(요 12:34),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눅24:44),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마5:17), '옛 상속 언약'(고후3:14) 등으로 부른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간의 침묵기가 있었으며 이때에 나온 외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글이 아니다.

B.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 주는 증거

1.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대언자들을 통하여, 신약시대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히 1:1-2).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 기록자들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 주는 증인이다(신6:17; 시119:89; 잠30:5-6; 렘23:29; 마5:17-19; 마 22:29; 막13:31; 행17:11; 롬10:17; 딤후3:15-17; 벧전1:23-25; 벧후1:20-21; 계 22:18-19).
2. 시19:7-11, 여섯 가지 특징, 여섯 가지 사람의 변화

C. 성경의 구성

1. 성경은 66권의 작은 책들로 구성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기점으로 해서 39권의 작은 책들로 구성된 구약성경과 27권의 작은 책들로 구성된 신약성경으로 나뉜다. 성경은 1,189장(구약 929장, 신약 260장), 31,102절(구약 23,145절, 신약 7,957절), 788,258 영어 단어(구약 609,247단어, 신약 179,011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긴 장과 절은 시편 119편과 에스더 8장 9절이고 가장 짧은 장과 절은 시편 117편과 요한복음 11장 35절이다. 성경의 중간 장은 시편 117편이며 성경의 중간 절은 시편 103편 1, 2절인데 그중 1절은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로 되어 있다.
2. 구약성경은 아람어로 기록된 일부(스4:8-6:18; 7:12-26; 렘10:11; 단2:4-7:28 등)를 제외하고는 모두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으며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a. 모세오경(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 b. 대언서: (a) 전기 대언서(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 (b) 후기 대언서(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의 열두 개의 소 대언서)
 - c. 거룩한 기록들: (a) 진리(시편, 잠언, 욥기), (b) 다섯 개의 두루마리(아가, 룻기, 애가, 전도서, 에스더), (c)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3. 신약성경은 당시의 일반 통용어였던 코이네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으며 역사를 다루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사도들의 서신서, 그리고 미래 일을 담고 있는 계시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에 성경에는 지금과 같이 절과 장의 구별이 없었다. 고대에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약성경을 몇 부분으로 나누었으며 주후 9세기경에 절을 표시했다. 성경의 모든 책을 장으로 나눈 것은 주후 13세기경에 휴고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주후 1551년에 스테파누스(스테판)는 신약성경에 절을

붙였으며 그 후에 이것이 일반적으로 수용되었다.

D. 성경의 주제와 내용

1. 성경은 우주가 만들어지면서 시간이 들어오기 전의 '과거의 영원'과 주전 4004년에 시작된 하나님의 특별 창조로부터 현 세상의 멸망, 그리고 앞으로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미래의 영원'까지의 모든 일을 기록한다.
2. 성경의 궁극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을 구속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엡1:4-6; 요 20:30-31; 요일5:20; 계4:11).
3. 구약성경은 신약성경의 예표와 그림자로서 만물의 기원과 사람의 창조와 타락, 죄, 이스라엘, 희생 제도를 보여 준다.
4.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약성경의 성취와 교회의 설립, 천년왕국과 그 이후의 미래의 일을 담고 있으며 구약성경의 실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신약은 구약 안에 숨겨져 있고 구약은 신약에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5. 성경은 과학, 역사, 문학, 철학, 시, 예언 등에서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100% 진리만을 담은 완전한 하나님의 책이며(롬3:4) 또한 시, 역사, 드라마, 사랑 이야기, 증오 이야기, 전쟁 이야기, 철학, 논증 등을 담은 문학 책이다.
6. 성경은 편견이 없는 책으로서 사람의 죄와 실수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며 하나님, 사탄, 사람, 죄, 구원,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 등을 권위 있게 선포한다. 사람은 이런 권위로 편견 없이 이런 책을 지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
7. 끝으로 성경은 초자연적인 책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과 영광, 거룩함을 보여 주는 유일무이한 책이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요, 예수님은 '살아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요14:1-9).

E. 성경 기록의 계시와 영감과 보존과 번역과 해석

1.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계시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을 알 수 없다. 계시에는 창조를 통한 일반 계시와 성경을 통한 특별 계시가 있다. 하나님의 계시가 객관적인 기록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계시를 문자 기록으로 주셨다. 성경의 계시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
 - a. 망원경적인 측면: 성경은 멀리 셋째 하늘에서부터 땅 속의 지옥까지 또 만물의 시작부터 끝까지 보여 준다.
 - b. 현미경적인 측면: 성경은 하나님, 사람, 마귀, 죄, 구원, 미래의 일 등을 자세히 보여 준다.
 - c. 입체 사진경적인 측면: 성경은 그 안의 모든 것이 하나의 모순도 없이 연결되는 것을 사방에서 입체로 보여 준다.
- (2) 영감은 하나님의 계시를 글로 기록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영원하고도 절대무오한 기록을 필요로 하며 영감이야말로 이 같은 필요를 만족시킨다."는 말은 참으로 합당하다. 영감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말씀에 숨을 불어넣는 것을 뜻하며 그 결과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모든 성경 기록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딤후3:16). 성경 신자들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의 모든 단어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어주셨다는 '총체적 축자 영감'을 믿는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사상에 영감을 주시지 않았고 모든 단어에 영감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성도들은 항상 성경의 모든 단어를 살아 있는 말씀으로 대한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도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마4:4).
- (3) 보존은 하나님의 성경 기록을 하나님의 섭리로 안전하게 보존하여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섭리로 말씀을 보존해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통해 결코 소멸되지 않았다. 말씀의 보존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자신의 말씀에 영감을 주신 것이 의미가 없게 되며 하나님의 속성은 결코 이런 일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여러 세대를 통해 치밀하게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셨으므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들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시12:6-7).

- (4) 번역은 진리를 다른 민족에게 전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들을 다른 언어로 옮기는 것이다. 구약시대에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런 작업이 필요치 않았으며 신약시대에도 2세기까지는 그리스어를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과정이 필요치 않았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여러 나라의 성도들을 위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성경과 그리스어로 기록된 신약성경을 번역해야만 했다.
- (5) 해석은 진리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성경 구절의 정확한 뜻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성경의 각 구절이 오직 하나의 뜻만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진다. 성경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므로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며 어떤 신비주의적이며 비유적인 해석을 따를 필요가 없다. 성경 신자들은 문법적이며 역사적인 해석을 취한다. 문법적 해석이란 문맥에 맞추어 문자 그대로의 정상적인 의미를 취하는 것을 뜻한다. 역사적 해석이란 역사적 시대, 수신자, 목적, 배경 등을 이해하고 문맥에 맞게 해석하는 것을 뜻한다.

F. 성경 기록의 정경

1. 정경은 측량하는 막대기로서 다른 것들을 비교하고 대비하는 표준을 말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책들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각각의 책을 진리를 담은 전체 성경의 일부로 만들었는데 바로 이런 책들이 사람의 행위나 믿음과 실행의 기준을 판단할 수 있는 '권위 있는 표준 잣대'인 정경으로 사용되었다.
2. 유대교와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성경의 39권과 신약성경의 27권만을 정경으로 인정했으며 천주교회의 외경을 정경에 포함시킨 적이 없었다.
3. 또한 정경의 본문 형태는 항상 다수 본문의 근간이 된 전통 히브리어 마소라 사본과 그리스어 비잔틴 사본에서 나왔다.
4. 정경은 사람이 정할 수 없고 하나님이 정하신다. 성경의 영감은 정경을 요구하며 어떤 책이 정경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책에 영감을 부여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은 공회 등의 기구를 통해 정경을 인정할 뿐이지 정경을 정하지 못한다.
5. 구약성경은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그 사본들을 간수했으며 정경 작업은 서기관 에스라 시대와 말라기가 기록된 시대에 끝이 났다. 신약성경의 경우 주후 397년에 열린 카르타고 공회에서 일반적 동의에 이르게 되었고 교회들이 최종적으로 수용하였다.

G. 성경의 확산과 보편적 성경

1. 처음으로 세상에 잘 알려진 영어 신약성경은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인 1370년경에 나온 위클리프 성경이다. 그 뒤 인쇄술이 발명되고 1526년에 처음으로 틴데일의 신약성경이 인쇄되어 나왔고 1535년에 커버데일은 처음으로 신구약을 포함한 성경전서를 발간하였다. 그 뒤 커버데일과 다른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매리 여왕의 압제를 피해 제네바에 거하면서 1560년에 제네바 성경을 출간하였고 그 후 1611년에 제임스 왕에 의해 일반 사람들을 위한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되어 지난 400여 년간 온 세상에 복음을 알리는 표준 성경이 되었다.
2.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가 최고조에 이른 때에 당대의 석학 50여 명이 원어에서 충실하게 번역한 성경으로 단 한 번의 수정 없이, 단 하나의 오류 없이 당당하게 세월의 풍파를 거스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으며 문학적으로도 영문학의 백미로 꼽힌다. 「킹제임스 성경」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히브리어 전통 마소라 본문과 그리스어 공인 본문을 축자적으로 완벽하게 번역하여 전 세계 공통어인 영어로 표현하여 말 그대로 모든 성경의 표준이 되었다는 데 있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신국제역」(NIV), 「신미국표준역」(NASB) 같은 현대 역본이 쏟아져 나오

고 있지만 이것들은 한결같이 부패된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과 그리스어 비평 본문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수천 군데에 오류를 담고 있고 특히 축자적, 형식적 일치 번역이 아닌 동적 일치 번역이므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H. 성경의 영향

1. 성경은 인류 역사를 통해 가장 많이 읽히고 번역되고 팔리고 영향을 미친 책이다. 실로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성경만큼 인류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책은 없다. 기독교의 정경인 성경은 지금까지 2,000여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세계 어디서나 어느 정도의 성경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문화인이라 불리기 힘들 정도로 폭넓은 영향을 미쳐 왔다. 다른 종교에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친 이런 경전이 없다. 성경이 이런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은 그 안에 있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숨결 때문이다.
 2. 역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파괴하려고 시도했으나 그들의 시도는 모두 허사로 드러났다. 볼테르(AD 1694-1778) 같은 인본주의 불신자들의 성경 무용론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성경은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지식을 값없이 사람에게 제공하는 생명의 샘이 되고 있다. 앞으로 이 땅이 소멸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며 영원한 미래가 올 때까지 성경은 믿지 않는 이에게 하나님의 지옥 심판의 경고를 주며 믿는 이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줄 것이다(막 9:42-50; 눅12:4-5; 요3:16; 5:24; 17:17; 20:30-31).
8. 성경의 총 주제 그리스도: 요20:30-31, 요일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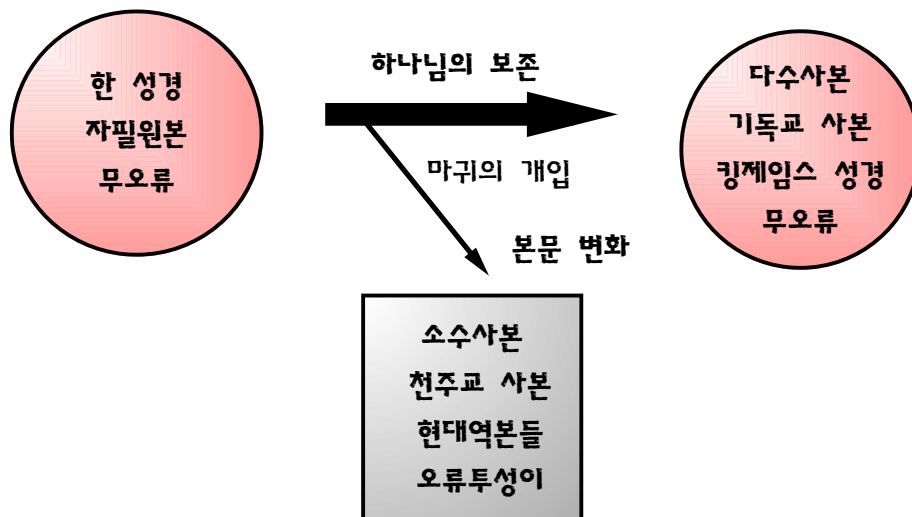
2.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권위로 믿는가?

1. 문제: 성경에는 두 종류가 있다.

〈내용이 전혀 다른 성경 구절들〉

개역/개정, NIV 등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19:26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악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시10:4-5	[사악한 자]의 길들은 항상 고통을 주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잠26:22	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말들은 상처들과 같아서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1:14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주께서...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사9:3	주께서...기쁨을 더하지는 아니하셨으나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 무라	호10:1	이스라엘은 텅 빈 포도나무요
삼일마다 너희 십일조를 드리며	암4:4	삼 년 뒤에 너희 십일조를 가져오고
없음	막9:44, 46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 하느니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골2:18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벧전2:2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 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 게 하려 함이라
없음(6절을 둘로 나누어 6절 후반부 를 7절에 넣었음)	요일5:7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 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성경 본문 전달 과정 요약〉



2. KJB를 제외한 다른 모든 역본은 천주교 소수 사본에서 번역되어 내용이 KJB와 다르다.

〈그리스어 「공인본문」과 「수정본문」 비교〉

	공인 본문	수정 본문
총 단어 수	140,521	총 5,604 군데 수정: (1,952 군데 삭제, 467 군데 추가, 3,185 군데 변경)
총 페이지 수	647	9,970 단어 변경
페이지당 단어 수	217	페이지당 15.4 단어 변경
변개된 단어	없음	전체 단어 중 7% 변경
변개 분량	없음	총 46 페이지에 해당함

무어맨 박사는 수용 본문과 네슬레/알란드 본문(27판)의 모든 단어를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다 세어 보았다. 그 결과 네슬레/알란드 본문의 단어가 수용 본문보다 무려 2,886개나 부족했다. 이것은 웨스트코트-호르트 본문이 삭제한 단어보다 934개가 더 많음을 뜻한다(1,952개 대 2,886개). 삭제된 2,886개의 그리스어 단어들을 영어 단어로 환산하면 베드로전후서를 만들 수 있다. 웨이트 박사의 〈킹제임스 성경의 4중 우수성〉

〈개역성경의 '없음' 13구절〉

1	마17: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2	마18:11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3	마23:14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걸치레로 길게 기도하니 그런즉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4	막9:44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5	막9:46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6	막11:26	그러나 너희가 만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7	막15:28	이로써, 그가 범죄자들과 함께 계수되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더라.
8	눅17:36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9	눅23:17	(이는 그 명절이 되면 그가 필연적으로 반드시 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더라.)
10	행8:37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내사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11	행15:34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라는 거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더라.
12	행28:29	그가 이 말들을 하매 유대인들이 떠나서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13	롬16:2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3. KJB는 성도의 믿음과 실행에서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권위이다.

1. 우수한 본문

2. 우수한 번역 기법
 3. 우수한 번역자들
 4. 우수한 신학
4. 불신자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성경이 있다는 사실을 반대한다.

3. 개역 성경 분석

1885년 4월 5일 동방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다. 한국의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역사상 다른 나라들에서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참되신 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큰 고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조선 왕조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선포하며 선한 싸움을 싸웠다.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필요하므로 1877년부터 로스 등을 필두로 하여 여러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 성경 번역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 1911년에는 신구약성경인 성경전서가 출간되었고 그 뒤 1938년에 성경전서의 개정판인 성경개역이 출간되었으며 1961년도에는 성경개역의 개정판인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이하 개역성경)이 출간되었다.

킹제임스 성경 이슈

국내에서는 1611년에 영국에서 출간되어 영어의 발흥과 함께 전 세계적인 성경이 되고 모든 기독교 교리를 확립하며 수많은 신학 교재 및 일반 크리스천 교양서적의 근간이 되고 300여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권위를 자랑하는 킹제임스 성경(*King James Bible*, KJB)이 단지 문헌을 통해 ‘제임스 왕이 제정한 성경’ 즉 ‘흠정역 성경’으로 알려져 왔다. 그것은 영미 문학에 가장 큰 공헌을 끼치고 문장이 수려하며 보수적인 성경 정도로만 인식되었고 그것을 소장하여 공부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래서 1980년대 후반까지는 개역성경과 킹제임스 성경 사이에 큰 차이점이 많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바로 그때에 성경대로 믿기를 원하는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들이 주로 미국에서 출간된 문헌들을 통해서 킹제임스 성경과 신국제역(*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신미국표준역(*New American Standard Bible*, NASB) 같은 현대 역본들 사이에 엄청난 교리적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개역성경이나 공동번역 그리고 표준새번역 등의 한글 성경들을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한글 성경들도 다른 현대 영어 역본들과 내용 면에서 거의 동일함을 알게 되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학계나 관련 출판계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었다.

실제로 미국 등의 영어권 국가에서 성경 논쟁이 일어난 것도 그리 오래 된 일이 아니다. 1969-78년에 NIV가 출간되기 전까지 전 세계 영어성경은 킹제임스 성경 하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1611년 이후로 약 400년 동안 킹제임스 성경은 전 세계의 유일무이한 ‘거룩한 성경’(Holy Bible)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1960-70년대 이후에 NIV, NASB, NKJV, Living Bible 등의 현대 역본들이 광고의 홍수 속에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면서 한결같이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였고 이것들의 맹공에 맞서기 위해 급기야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NIV 등의 현대 역본들의 오류를 지적하고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다.

1881년 영국에서 웨스트코트(B. F. Westcott)와 호르트(F. J. A. Hort)가 전통적인 프로테스탄트 공인본문(*Textus Receptus*, TR)을 대적하며 로마 카톨릭 천주교 사본에 근거한 영국개역성경(*English Revised Version*, ERV 혹은 짧게 RV)을 들고 나온 이래로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는 성경 본문 논쟁이 늘 있어 왔다. 그러나 미국에서 일반 성도들에게까지 성경 본문 논쟁이 확산된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일이다. 한 마디로 미국의 성경 논쟁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공격과 변호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킹제임스 성경 논쟁은 마치 진화론 논쟁과 비슷하다. 다윈의 진화론이 등장했을 때 보수주의 학자들이나 성도들은 이에 대해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지냈다. 그러다가 인본주의자들에

의한 맹공으로 인해 성경의 토대인 하나님의 특별 창조가 거의 무너질 지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성경 신자들이 창조과학회 등의 사역을 통해 진실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 진화론은 이미 온 세상에 마치 과학처럼 굳건하게 자리를 잡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NIV 등의 현대 역본들이 나올 때에 미국에서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은 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경 문제로 인해 교회가 갈리고 교리의 문제가 발생하자 적극적으로 이에 대항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지금은 미국의 웬만한 크리스천 독자라면 성경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많은 유학생들이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했지만 이 같은 성경 본문 문제를 접할 기회는 거의 갖지 못하였다. 그들 역시 필자와 마찬가지로 여러 역본을 대하면서 본문은 같은데 단지 번역이 다를 뿐이라고 피상적으로 생각했음에 틀림이 없다. 한국 교회의 특성상 유학생이라면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주로 장로교와 감리교 신학교를 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주지하는 대로 미국에서는 장로교와 감리교가 가장 인본적이므로 이런 신학교에서는 이미 현대 역본만을 사용하거나 혹은 현대 역본의 기초가 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그리스어 본문을 귀중히 여기므로 이런 데서 공부하는 경우 성경 문제 자체를 살펴볼 기회를 갖기 어렵다.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미국에서는 침례교회가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이런 교회들에서는 어김없이 킹제임스 성경만을 사용해 왔다. 따라서 성경 본문 논쟁도 실제로 침례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침례교회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의 장로교, 감리교 등은 성경 본문 문제 등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한국 유학생이 침례교 신학교에 대해 알지 못하고 그런 학교에 진학하지 않으므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왔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다.

한국에서도 뜻있는 성도들이 개역성경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던 차에 미국의 자료를 통해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리려 노력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마귀의 계략에 넘어간 극단주의자들이 등장하여 “개역성경은 사탄 성경이다.”, “개역성경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아말로 한국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신약교회이다.” 등과 같은 비상식적이고도 비논리적인 발언을 하며 안하무인격의 행동을 함으로써 킹제임스 성경의 명성과 권위는 하루아침에 땅에 곤두박질치고 말았다.

한편 이런 현실과 성경 문제의 핵심이 성경 본문에 있음을 인식한 성경 신자들이 1990년대 초반부터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성경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의 모든 단어를 보존해 주심을 확고히 믿는 가운데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말로 바르게 번역해야 한다는 책임 의식과 부담을 갖고 차근차근 일을 수행하여 2000년 8월에 ‘킹제임스 흠정역’이라는 우리말 성경을 펴냈고 꾸준히 교정 작업을 수행했다.

성경 문제의 핵심

어떤 제품을 만들 때 그것을 만드는 사람과 원료에 의해 최종 산물의 질이 결정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이 같은 원리는 성경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이 경우에는 번역의 대본으로 쓰인 친구약 본문과 성경 번역자들의 사상 및 문화적 배경이 최종 산물 즉 번역된 성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개역성경과 공동번역 그리고 표준새번역 등 대한성서공회에서 출간한 성경들 밖에 없었으므로 과연 그런 역본들이 바른지 그른지 또 그르다면 어느 부분이 그른지 비교/검토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역본들과 뿌리가 다른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그리스도 예수안에, www.KeepBible.com)이 출간되었으므로 문제가 되는 점들을 하나하나 비교하고 그 결과와 원인을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번역의 핵심 요소들이 한국의 독보적 성경으로 자리를 굳힌 개역성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킹제임스 성경과 개역성경을 비교/분석하려 한다. 이번의 분석을 통해서 한국의 성도들이 개역성경을 비롯한 기존의 한글 성경들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간에 본문 및 교리적 차이가 심각함을 발견하고 과감하게 로마 카톨릭 교회의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에서 나온 성경들을 버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걸고 보존해 준 성경, 로마 카톨릭 교회의 허구와 미신을 와해시킨 루터와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의 성경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저자는 개역성경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혼의 안식과 위로를 주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5장의 개역성경분석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개역성경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바른 것을 제시해야 하므로 그것의 좋지 않은 면을 많이 부각시킨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부디 양식 있는 독자께서 이 점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달고 선한 말씀들로 은혜 가운데 빛을 주실 줄 확신하다.

구약성경본문

구약성경의 경우 20세기 초까지는 유대인들이 순수하게 보존한 전통 마소라 본문(*Ben Chayyim Masoretic Text*)이 거의 모든 성경 번역의 대본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특권 의식을 가진 유대인 마소라들이 심혈을 기울여 본문을 보존했기 때문에 이 본문에 대한 비판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1937년에 히틀러 수하에서 일하던 키텔(R. Kittel)이 전통 마소라 본문을 폐지하다 평균 15-20군데씩 수정하여 비블리아 헤브라이카(*Biblia Hebraica*)를 편찬했는데 이 본문은 후에 1967/1977년판 슈투트가르트 비블리아 헤브라이카(BHS)로 개정 출간되었다. 개역성경, 신국제역(NIV), 신미국표준역(NASB) 등 모든 현대 역본의 구약은 이 BHS를 기초로 하여 번역되었으므로 그 안에는 이러한 개정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다시 말해 마소라 본문이라고 해서 다 같지 않고 어떤 마소라 본문을 대본으로 사용했느냐에 따라 구약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

신약성경본문

신약성경의 경우 로마 카톨릭 교회를 제외한 거의 모든 신약 교회가 지난 1900 년간 그리스어 공인본문(*Textus Receptus*, TR 혹은 수용본문)을 보편적으로 사용해 왔다. 이 본문은 다수사본에 근거했기 때문에 '다수본문'이라고도 하며 가장 널리 사용되었기에 '보편적 본문'이라고도 하고 천주교회의 서방 본문과 대비되어 '비잔틴(동방)본문'이라고 하며 루터와 칼빈 등 개혁자들이 한결같이 이 본문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종교개혁본문'이라고도 한다. 한편 로마 카톨릭 교회는 '소수본문'만을 고수해 오고 있는데 '소수본문'이란 말이 의미하듯이 이 본문을 지지하는 사본은 몇 개 되지 않는다(전체 사본의 1% 정도). 이 사본들 중 가장 유명한 것으로는 로마 교황청 도서관에 전시용으로 보존되어 온 '바티칸 사본'과 시네 산에 있는 그리스 정교회 수도원의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된 '시네 사본'이 있는데 사실 이것들은 변질된 내용 때문에 대다수 성도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던 것들이었다. 그런데 1881년에 영국의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이 두 사본이 가장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며 공인본문을 무려 5,604 군데나 수정하여 소위 '수정 그리스어 본문'이라는 개역본문을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공인본문에서 삭제하거나 추가하거나 변개한 단어는 무려 9,970 개나 되며 이것은 신약성경본문에 나오는 140,521 개 단어의 7%나 되는 양이다. 1881년의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이후에 1898년에는 네슬레가 티센도르프의 8판과 위마우스의 3판과 함께 신약성경 본문을 편집하여 '네슬레의 그리스어 신약성경'이라는 본문을 만들었다.

개역성경의 본문

로스의 성경을 필두로 하여 한글 성경은 한결같이 로마 카톨릭 교회 소수본문에 근거하여 번역되었다. 개역성경의 구약은 1901년의 미국표준역(ASV)에 기초하여 번역되었는데 미국표준역은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수정 그리스어 본문에 기초한 영국의 개역성경(ERV)과 내용이 같다. 대한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공동번역, 표준새번역 등도 한결같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이집트 본문을 사용하여 번역되었으며 번역의 대본인 본문이 같으므로 문체만 다를 뿐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각주에 "더 좋은 사본에....." 혹은 "더 오래된 사본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경우 더 좋거나 더 오래된 사본들은 대부분 대한성서공회가 자신들의 성경 번역을 위해 대본으로 삼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본들이다.

교황, 마리아, 연옥, 사제(신부), 면죄부, 행위 구원 등 비성경적 요소로 가득한 기관, 성경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성도들을 죽인 단체에서 성도들을 위해 올바른 성경 사본을 보존해 왔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대한성서공회를 움직이는 연합성서공회의 지도자가 로마 카톨릭 교회 사제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¹⁾ 부디 알렉산드리아 학자들의 말을 믿지 말고 성경의 판결을 믿기 바란다. 이집트 사상을 이어 받은 로마(바빌론)에서는 결코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계17, 18장).

개역성경의 용어

성경 번역이나 해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개념으로 단어들을 다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처음에 성경이 한글로 번역될 때 중국 및 인도의 이교도 사상과 토속 사머니즘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와중에 이런 비성경적 사상들이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여 개역성경에는 기독교 개념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단어가 많이 들어 있다. 한 예로 귀신이라는 단어를 들 수 있다. ‘우리말 큰 사전’은 귀신을 가리켜 ‘사람이 죽은 뒤의 넋’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 중국 등에 편만한 이교도 사상으로서 성경은 결코 이런 개념을 수용하지 않는다. 바른 본문에서 바른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번역하여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 온 킹제임스 성경은 정관사 ‘the’가 붙은 마귀 즉 유일한 사탄 마귀와 그의 천사들인 마귀들이 있다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성경 번역자들의 본문 및 용어 선택이 신학과 교리에 미친 영향을 정리하였다.

1. 한 하나님인가, 한 분 하나님인가?

● 삼위일체

삼위일체야말로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특이한 것이며 사실 이 교리로 인해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다. 그런데 마땅히 삼위일체를 가르쳐야 할 성경이 여호와의 증인들의 믿음을 가르친다면 그 결과가 어떨 것인가?

개역: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역번역: God is one person. 딤후2:5)

흠정역: 한 하나님이 계시느니라(영어 KJV: There is one God).

개역성경처럼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여호와의 증인들 주장대로 하나님은 한 분 즉 아버지 하나님만 있게 된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결코 한 분이 아니며 아버지, 아들, 성령의 뚜렷한 세 분으로 존재하시되 이 세 분이 하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야말로 너무 중요한 것으로 이것이 무너지면 기독교의 근간이 무너지게 된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분명한 말씀을 주셨다.

흠정역: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요일5:7).

그런데 개역성경은 알렉산드리아 철학을 따라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이 부분을 삭제했다.

개역: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인가?

삼위일체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것으로 한국에서도 이로 인해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양태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많으며 심지어 복음적인 교단의 목사나 지도자들도 이런 이론을 가르치고 있다. 예를 들어 누가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나는 아이들에게는 아버지요 아내에게는 남편이요 성도들에게는 목사이다.”라고 말하면 이것이 곧 양태론이다. 또는 “물은 얼음도 되고 액체도 되고 수증기도 된다.”는 주장 역시 양태론에 근접한 진술이다. 이렇듯 양태론의 핵심은 한 하나님이 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되고 성령님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것을 분명하게 이단 교리라고 말한다. 한국에는 양태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여럿 있는데 그중에 한 파는 여기서 더 나아가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이고 성령님의 이름이 예수라고 주장하며 그래서 침례를 줄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으로 준다.”고 한다. 이런 이론이 생기게 된 것은 전적으로 개역성경 때문이다. 이들은 요한복음 17장 11절을 근거로 이런 엉터리 주장을 한다.

1) 천주교 추기경인 마르티니(C. N. Martini)는 밀라노의 주교이며 교황 성경 연구소에서 신약성경 본문 비평을 가르치는 교수이고 1967년부터 연합성서공회의 그리스어 신약성경 편집자 중 하나로 일했다.

개역: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기록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개역성경에는 분명하게 예수라는 이름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들이 성경대로 그렇게 믿는다고 주장해도 도저히 반박할 수 없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이와 전혀 다르다.

흠정역: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이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기록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흠정역 성경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로 되어 있다. 즉 개역성경에는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아들에게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들을 주신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성경이 다르면 교리가 변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개역성경의 근간이 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본들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NIV 등도 개역성경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임을 보여 주며 그 결과 예수 유일주의 같은 이단 교리가 발붙일 틈을 주고 있다.

NIV: I will remain in the world no longer, but they are still in the world, and I am coming to you. Holy Father, protect them by the power of your name-the name you gave me-so that they may be one as we are one.

이제 성경적 삼위일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뚜렷이 구분되는 서로 다른 세 인격체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한 하나님으로서 이 세 인격체 중 하나가 없으면 한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시간을 생각해 보자. 시간은 반드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며 각각이 다 시간이고 이 셋 중 하나가 없으면 더 이상 시간이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체는 공간을 차지하면서 반드시 길이(x), 너비(y), 높이(z)를 가지고 있으며 이 중 하나가 없으면 더 이상 물체가 아니다. 아무리 얇은 것도, 작은 것도 반드시 x, y, z 세 방향의 크기를 가지며 이로써 그 물질이(혹은 공간이) 구성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삼위일체의 증거들을 우주에 많이 만들어 두셨다.

2. 독생하신 아들인가, 독생하신 하나님인가?

● 그리스도는 창조된 신인가?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이분을 제대로 알 때에야 비로소 올바른 구원받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개역: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요1:18)

흠정역: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

여기서 '독생하다'는 말은 영어로 'only begotten'이며 이는 '유일하게 낳은'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개역성경은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유일하게 낳은 하나님'임을 보여 주며 이로써 또 다시 '예수님은 창조된 하나님'이라는 여호와의 증인들의 교리를 지지한다.

성경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요일2:22)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아들'(Son)을 제거해 버린 개역성경과 다른 현대 역본들은 성경의 증거에 따라 다 적그리스도이다. 실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같이 영존하시는 분임을 믿고 있다. 그리스도와 관련된 '나신'(begotten)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흠정역: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1:14).

KJV: And the Word was made flesh, and dwelt among us, (and we beheld his glory, the glory as of the only begotten of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 임마누엘을 부인함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많이 사용하는 말 중 하나이다. 이사야서에서 처음 언급된

이 말(사7:14; 8:8)은 성경에 단 세 번 나오며 마태복음에서 성도 마태가 이것을 인용하고 있다(마1:23).

개역: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 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개역성경을 따르면 임마누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으며 단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평범한 약속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도로 이 구절을 주지 아니하셨다.

흠정역: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비슷하게 보이지만 킹제임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즉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강력하게 증언하는 말이다. 그러나 개역성경은 이것을 전혀 달리 번역했으므로 이런 구절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기 어렵다.

● 그리스도의 성육신 부인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라고 말했다(요일4:3). 여기서 밑줄 친 부분은 참으로 적그리스도를 시험하기 위한 중요한 시금석이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

개역: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개역성경은 ‘그리스도’와 ‘육신 안에 오셨다’는 구절을 삭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으며 따라서 사도 요한이 말한 ‘적그리스도의 영’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속이는 자들에게 동조하는 자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속임수로 인해 고통을 자초할 것이다.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자가 속이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런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죄를 지으며 그리스도의 교리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한 채 너희에게 오거든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축복 인사를 하는 자는 그의 악한 행위들에 참여하는 자니라(요일7-11).

지금까지 우리는 개역성경이 무려 12번 이상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지워 버린 것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개역성경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육체에 오신 것’도 삭제하고 있다.

●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부인

한편 알렉산드리아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창조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분의 신성을 공격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마저도 공격한다.

개역: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눅2:33)

흠정역: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는 그가 아이에 관하여 말한 그것들로 인해 놀라워하더라.

요셉은 결코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다. 그가 예수님의 아버지라면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의 피를 받고 태어난 죄인이 되고 만다.

● 그리스도의 신성 부인

또한 마귀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려고 무척이나 애쓴다.

개역: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마5:22)

흠정역: 누구든지 아무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협에 처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서기관들에게 노하셨는데 만일 이런 구절에서 ‘아무 까닭 없이’가 빠진다면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

● 그리스도의 피 부인

또한 개역성경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예수님의 피를 무시한다.

개역: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골1:14)

흠정역: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3. 하나님의 영인가, 하나님의 신인가?

구약시대에는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영'(the Spirit of God) 혹은 '주의 영'(the Spirit of the LORD) 등에 있는 성령님(the Spirit)은 구약성경에 28회나 나오지만 개역성경은 이것을 다 '신'(god)으로 번역하여 구약에서 성령님을 제거했다.

개역: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창1:2)

흠정역: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하나님의 신을 다시 영어로 번역하면 'god of God'이 되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번역된 성경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 아마 유니테리언 교도들만이 이런 번역을 취할 것이다. 구약의 'the Spirit'이 바로 신약의 'the Spirit' 즉 동일한 성령님이라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개역성경의 번역자들이 기독교를 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자기들 속에서 형성된 그 당시의 보편적 사고 체계에 따라 소위 신이 내린다는 강신(降神)의 무속신앙 개념으로 성경의 '성령님'을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개역: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므로(삼상10:10)

개역: 여호와와 그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삿6:34)

따라서 과거에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던 '성신'은 틀리며 '성령'이 맞는다. 한편 신약성경에서 개역성경은 성령에 관한 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개역: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롬8:9)

개역: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빌1:19)

이런 구절은 다 'the Spirit of Christ'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통일되어야 한다. 이런 번역자들을 향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흠정역: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므로 잘못하느니라(마22:29).

4. 주인가, 여호와인가?

한국 성도들에게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매우 친숙한 단어이다. 이 단어는 '4자음문자'(Tetragrammaton)라고 널리 알려진 히브리어 'JHVH'에서 왔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의 종살이를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처음으로 이 이름을 계시해 주셨다(출 3:13-16; 6:2-8). 또한 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엄중히 명령하셨다(출 20:7).

흠정역: 너는 주 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명령을 매우 두렵게 생각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분의 두려운 이름 'JHVH'를 대할 때마다 눈으로 그 이름을 확인하고 정작 읽을 때는 주(主)를 의미하는 '아도나이'(Adonai)로 읽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래서 영어의 'Jehovah'는 히브리어 4자음문자 'JHVH'에 '아도나이'의 모음을 넣어 만든 'JaHoVaH'를 음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그들의 영향을 받은 현대주의자들은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전통 마소라 본문은 모음 부호를 통해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임을 명백하게 보여 준다. 한편 개역성경의 '여호와'는 영어의 'Jehovah'를 우리말로 음역한 것이다. 사실 대한성서공회 역시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약의 마소라 본문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네 글자를 '주'(아도나이)라 표기했고 신약의 사도들이 신약을 기록할

때도 그 이름을 '주'(큐리오스)라고 기록했으며 루터의 독일어 성경도 이 이름을 '주'(헤르)로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이 이름을 '주'(로드)라 번역했고 개역성경 신약도 이 거룩한 이름 네 글자를 '주'라고 번역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는 대한성서공회가 개역성경의 구약을 번역함에 있어 신약을 번역할 때와는 달리 주님의 거룩한 이름 '여호와'를 그대로 음역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읽으면서 무려 6,400회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취하게 해 놓았다는 점이다. 그 결과 많은 성도들이 마땅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아무 때나 아무 의미 없이 취함으로써 그 이름의 위엄과 존엄성을 떨어뜨리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기도할 때 심각하게 나타난다.

5. 루시퍼인가, 계명성인가?

흠정역: ¹²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¹³내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¹⁴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¹⁵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하다. ¹⁶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너에 대해 깊이 생각하여 이르기를, 이 자는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흔들며 ¹⁷세상을 광야같이 만들고 거기의 도시들을 멸망시키며 자기 죄수들의 집을 열지 아니한 자가 아니냐? 하리하다(사14:12-17).

루시퍼의 자만에 찬 외침 즉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는 외침 속에는 단어 단어마다 그의 불만이 무겁게 깔려 있다. '기름 부음 받은 그룹'(Cherub)인 루시퍼는 스스로 자신의 신분을 변경하기를 원했다. 그는 모든 창조물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 아니라 자기에게 경배를 드리기를 갈망했다. 마태복음 4장 9절에 기록된 대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내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이라고 말한 것을 보아도 그의 욕망이 경배 받는 것임이 확실하다. 그러나 계시록 13장 4절이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했다고 기록하듯이 불행하게도 그의 야망은 곧 성취될 것이며 바로 그 환난기가 뉴에이지의 절정기가 될 것이다.

계시록 12장 9절은 '큰 용이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라고 분명히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그의 정체성을 밝히 보여 주고 있다. 21세기의 일반 대중이 사탄에 대해 느끼는 나쁜 이미지를 바꾸어 경배 받기에 합당한 좋은 이미지로 바꾸기 위해 대중 매체는 그럴듯한 선전을 동원하고 있다. 그 내용은 가히 놀랄 만한데 그 핵심은 그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사야서 14장은 성경에 기록된 루시퍼에 대한 유일한 일대기로서 이곳이야말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불법의 신비'(살후2:7)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우리는 12절에서 루시퍼가 하늘에 있음을 알 수 있고 15절에서 그가 지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늘에서 지옥으로 가는 동안 그는 무려 다섯 번이나 "내가...하리니"(I will...)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과 같게 되려는 욕망을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외침 하나 하나는 루시퍼를 하늘에서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계단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성도들은 이 구절을 통해 마귀의 자만심의 본질이 무엇인지 바르게 볼 수 있다.

위의 성경 구절은 사탄의 종착지가 어디인지 확실히 보여 주므로 지금까지 사탄의 증오의 대상이자 저항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 구절들은 그의 오만(13-14절), 세상의 불행에 대한 그의 책임(17절) 그리고 그의 파멸(15-16절)을 한 점 의혹도 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 마귀의 일대기는 에스겔서 28장에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나 거기에서 그의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고 그는 다만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라고 언급되어 있다(겔28:14). 루시퍼의 야망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는 것'인데 이 구절은 그의 정체성을 훤히 드러내 줌으로써 그의 꿈을 산산조각 내고 있다. 사탄에게 아부하지 않는 정결한 말씀으로부터 '루시퍼'라는 단어가 확실히 제거되어 그를 '지극히 높은 자'로 만드는 말씀 속으로 삽입될 때까지 그가 자신의 이름 '루시퍼'에 대해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지나치게 순진한 발상이다. 사실상 이 묘한 속임수는 개역성경을 비롯한 현대 역본들에서 이미 완성되었고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이 부패되지 않은 채 말씀의 순수성을 유지하며 루시퍼의 일대기를 보여 주고 있다.

개역: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사14:12)
NIV: How you have fallen from heaven, O morning star, son of the dawn! You have been cast down to the earth, you who once laid low the nations!

현대 역본들은 한결같이 '루시퍼'란 이름을 제거했고 이로써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타락 전 사탄의 이름을 보여 주는 부분은 본문에서 삭제되어 성도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 결과 '루시퍼'라는 단어는 이제 시인들과 신화 작가들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렸고 그는 더 이상 성경에서 유래되어 확인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 신화적 인물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성경을 변개시킴으로써 루시퍼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가리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 성경이 변개되었으므로 사탄은 자신이 원하는 어떠한 특성도 스스로 취할 수 있게 되었다.

6. 천사인가, 사자인가?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존재이다. 지금처럼 뉴에이지 사상이 득세할 때에는 특별히 천사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천사는 성경에 295회 나오는데 개역성경은 이 중 177회를 천사로, 67회를 사자(使者)로 번역했다. 천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의 천사'(the angel of the LORD)인데 개역성경은 이것을 다 사자로 번역했다.

구약의 '주의 천사'는 다른 천사와 달리 특별한 경우에만 나타나는 중요한 인물이며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개념이 제대로 번역되지 않으면 교리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개역성경은 마귀의 천사들 역시 사자들로 번역하여 마치 마귀에게는 그를 추종하는 천사들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소위 '배교의 결정판'이라 하는 NIV 등도 주의 천사와 마귀의 천사들을 제대로 번역했다.

개역: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마25:41)

흠정역: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뉴에이지는 아기 천사, 여자 천사 등을 가르치지만 성경의 천사는 모두 남자이며 아기 천사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천사를 다루는 부분의 'man' 혹은 'men'은 반드시 남자로 번역해야만 한다.

개역: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창19:5)

흠정역: 내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여기 나오는 '남자들'은 바로 천사들이며 소돔 사람들은 바로 이 남자들(천사들)과 성적 접촉을 갖고자 했다. 이에 대해 유다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흠정역: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strange flesh)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유7).

소돔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른 '낯선 육체'를 추구했다(물론 그들은 다 남성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개역성경은 여기서도 이상하게 번역을 하여 이런 것을 알 수 없게 만들었다.

개역: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과연 이런 번역을 가지고 소돔 사람들이 추구한 천사들과의 성적 접촉을 찾아낼 수 있을까? 한편 영어에서는 동성연애를 'sodomy', 동성연애자를 'sodomite'라 부른다.

끝으로 성경의 천사는 항상 젊은 남자로 나타나므로 사람이 알아보지 못한다.

흠정역: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히13:2).

7. 마귀인가, 귀신인가?

개역성경의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 소위 원한을 품고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할아버지 귀신, 할머니

귀신, 처녀 귀신인가?

개역: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고전10:20)

귀신론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면 무릎을 치지 않겠는가? 믿지 않은 사람들이 기일이 되면 상을 차려 놓고 조상귀신들을 불러오는 것이 참으로 이 구절과 잘 맞지 않는가! 과연 성경이 조상귀신을 가르친단 말인가?

흠정역: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나니

개역성경이 '제사하는 것'이라 번역한 단어는 'sacrifice'인데 이 단어는 우리 조상들이 조상귀신을 부르는 제사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용어로 '희생물을 드림'을 뜻한다. 그래서 구약의 소제, 화목제 등도 제사가 아니라 '음식 헌물', '화평 헌물'을 드린다고 해야 맞으며 모든 영어 성경이 '번제 헌물'(burnt offering) 혹은 '번제 희생물'(burnt sacrifice)이라 번역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 조상들이 무지할 때에 조상신을 섬기려고 드린 제사는 성경에서의 희생 헌물을 드린다는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 성경은 죽은 자가 가는 곳이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천이니 음부니 하는 허구의 장소는 없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누가복음 9, 16장 참조). 즉 죽은 사람의 넋인 귀신은 성경에 없다는 말이다.

8. 살아 있는 혼인가, 살아 있는 영인가?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역시 영, 혼, 몸으로 구성된 삼중적 존재이다.

흠정역: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살전5:23).

사람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음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구절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인데 개역성경은 여기에서도 전 세계 모든 성경과 달리 오역을 하여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

개역: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흠정역: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 되니라.

성경이 보여 주고자 하는 바는 사람이 몸(흙)과 영(생명의 숨)이 합쳐진 혼이라는 것인데 개역성경은 이것을 부인하며 그 결과 '영이 없는 사람'(창세기 1장)이 있고 '영이 있는 사람'(창세기 2장)이 있다는 '이중 아담론'을 확립해 주고 말았다. 사람이 '산 영'(living spirit)이면 죽지 않는데 그러면 도대체 무슨 부활이 필요하며 '살려 주는 영'(quickenning spirit)이 필요하단 말인가?

개역: 기록된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고전15:45)

흠정역: 그러므로 기록된바, 첫 사람 아담은 살아 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9. 짐승의 영인가, 혼인가?

과연 성경은 짐승에 대하여 무어라 말하는가? 성도들의 믿음과 실행의 표준이요, 최종 권위인 성경 말씀을 살펴보자.

개역: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전3:21)

흠정역: 누가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아느냐?

개역성경은 본문에 '짐승의 혼'이라고 적었으나 밑의 난외주를 보면 "여기의 혼은 원래 히브리어로 영임."이라고 되어 있다. 도대체 히브리어가 '영'이면 본문에 있는 그대로 '영'으로 해야지 왜 '혼'이라 했을까? 그 이유는 번역자들의 토착 샤머니즘 사상 때문이었다. 그들은 도저히 짐승에게도 영이 있음을 이해할 수 없었으며 그래서 자기들의 사상대로 '영'을 '혼'으로 번역하였다.

이 구절의 영은 히브리어 '루아흐'를 번역한 것으로 '루아흐'는 영, 바람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사람, 짐승과 관계가 있으므로 마땅히 영이 되어야 한다. 성경은 전도서 3장 19절에 있듯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숨을 가졌고 영을 가졌음을 분명히 보여 주며 노아의 대홍수 때에도 사람과 짐승 등 코에 생명의 숨을 가진 육체만 죽임을 당했다(창2:7; 6:17; 7:15; 7:22).

흠정역: 보라, 나 곧 내가 땅 위에 물들의 홍수를 일으켜 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에서 떨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창6:17).

한편 하나님께서는 짐승도 영을 가졌으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말을 할 수 있음을 보여 주시기 위하여 민수기 22장에서 단 한 번 나귀가 말하는 기사를 영감으로 기록하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자 영을 가진 나귀는 곧바로 천사를 알아보고 말을 하게 되었다.

어떤 이들은 이런 구절을 통해 짐승도 영이 있으므로 구원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다. 그러나 전도서 3장 21절이 의미하듯이 짐승의 영은 죽어서 소멸되고 만다. 그러므로 짐승은 영을 가졌으나 천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는 상관없이 죽으면 그 영이 땅으로 내려간다.

지금 ‘루아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전도서의 번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도서에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유명한 구절이 있다. 그러면서 전도사 솔로몬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한다.

흠정역: 내가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보았노니,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전1:14).

킹제임스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것이 헛되어 영을 괴롭게 한다.”(vexation of spirit)고 전도서에서 무려 10번이나 말하고 있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것을 전혀 달리 표현하고 있다.

개역: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영을 괴롭게 하는 것’과 ‘바람을 잡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앞서 말했듯이 ‘루아흐’는 ‘바람’으로도 번역이 되고 ‘영’으로도 번역이 된다. 원어가 동일하므로 이 같은 차이가 생긴데 대해 원어를 탓할 수는 없다. 이 예를 통해 우리는 성경 번역자가 같은 단어를 문맥에 따라 어떻게 번역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전도서의 문맥상 어느 번역이 맞을까? 우리는 전도서 기자가 말하려는 요점이,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이 번역한 대로,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어 우리의 영을 괴롭게 하는 것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결국 전도서 기자는 마무리를 하면서 12장 13절에서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즉, 이 모든 것이 영의 문제지 결코 뜬구름 잡는 것 같이 바람을 붙잡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번역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의미를 제대로 전달해 주는 번역이라고 믿으며 이런 의미에서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의 최종 권위라고 담대히 말한다.

10. 대언인가, 예언인가?

성도들이 성경을 성경으로 풀려면 성경 번역시 중요 용어를 반드시 일관성 있게 번역해서 용어색인(Concordance) 기능이 되게 해야 한다. 미국의 성도들이 성경대로 믿으며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에게 스트롱(Strong)이나 영(Young)이 만든 용어색인이 있어 누구라도 제대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이 어떤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는가를 살펴보려면 용어색인을 이용하여 그 단어의 용례를 처음부터 살펴보면 된다.

그런데 불행히 개역성경은 이러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예로 ‘prophecy’ 혹은 ‘prophet’이라는 단어를 들 수 있다. 이 단어들은 성경에 500회 이상 나오며 성경 기록 그 자체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현대 영어사전을 살펴보면 이 단어의 주된 의미가 ‘예언하다’이므로 개역성경의 번역자들은 이것들을 앞날을 예언하는 ‘예언’, ‘선지자’ 등으로 번역했다. 그러나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남의 말을 대신 전한다’는 ‘대언’(代言)이며 성경의 용례 역시 전적으로 이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심지어 개역성경도 출애굽기 7장 1절, 에스겔 37장 4절, 계시록 19장 10절 등 10 구절에서는 부득이 대언으로 바르게 번역했다.

개역: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출7:1-2)

개역: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때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이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을지어다(겔37:4)

개역: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계19:10)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신다.

흠정역: 이로써 창세로부터 흘린 모든 대언자들의 피를 이 세대에 요구하리니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은 사가라의 피까지라(눅11:50-51).

예수님께서서는 아벨을 가리켜 최초의 대언자라고 하신다. 다시 말해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초로 대언한 자라는 말이다. 그러면 그가 누구에게 대언했는가? 그는 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그 결과 박해를 받아 죽게 되었다. 이런 구절에서 개역성경처럼 아벨을 ‘선지자’라고 하면 말이 되겠는가?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창세기 20장에는 처음으로 ‘대언자’라는 단어가 나온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다.

흠정역: 그러므로 이제 그 남자(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대언자이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만일 네가 그녀를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모든 것이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창20:7).

여기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온다. 앞날을 예견한다는 의미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사실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할 때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라는 선언과 함께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들이 이런 선언을 할 때에는 평상시 입에 올리기 어려운 ‘여호와’(영어의 LORD)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자기들의 메시지가 주님의 말씀임을 확증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LORD)의 이름으로 대언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대언자를 죽이라고 명령하셨다.

흠정역: 만일 대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 일이 뒤따라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성취되지도 아니하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이요, 오직 그 대언자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말하였나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신18:22).

이와 같이 대언자의 책무는 엄청났으며 특히 구약시대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의 패망에는 거짓 대언자들의 역할이 지대했다.

한편 성경 기록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언자들이 받은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다음 말씀처럼 성경 기록은 대언이다.

흠정역: 성경 기록의 대언 중 어떤 것도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벧후1:20-21).

이처럼 성경은 분명히 성경 기록 그 자체가 대언임을 보여 주지만 개역성경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알 길이 없다.

개역: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여기서 개역성경이 ‘예언’으로 번역한 단어 역시 앞날을 예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대언으로 주신 말씀을 뜻한다. 앞뒤 문맥이 분명하지 않은가?

이처럼 중요한 단어를 ‘선지자’나 ‘예언’ 등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 내에서도 고린도 교회의 은사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여 많은 교인들이 입시, 입사, 이사 때마다 예언기도 받으러 기도원의 점쟁이들을 찾아다닌다! 신약시대에도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것은 대언의 말씀이지 결코 예언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나 개역성경은 고전 12-14장의 대언, 대언자를 다 예언, 선지자로 번역하여 기복무속신앙을 부추기고 있다. 구약의 대언자들의 말씀 중 여러 부분이 미래를 다루므로 대언에 예언의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언이라는 말은 이미 그 의미도 다 포함하고 있다.

사실 구약시대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처음에는 ‘선견자’(seer)라는 호칭이 있었으나 후에는 ‘대언자’로

바뀌었다.

흠정역: (예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여주려 할 때에 이같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선견자(seer)에게로 가자, 하였더라. 지금 대언자(prophet)라 부르는 사람을 예전에는 선견자라 불렀더라)(삼상9:9).

여기 나오는 선견자야말로 '앞날을 내다보는 사람'으로 '선지자'와 같은 말이다. 그러므로 이런 구절에서 대언자를 '선지자'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게 된다.

11. 왕국인가, 천국인가?

한 국가의 통치 제도는 누가 그 권력을 행사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된다. 다시 말해 백성들 개개인이 통치 권력을 행사하면 민주국이 되고 왕이 홀로 통치하면 왕국이 된다. 그러면 성경 속의 하나님의 통치 체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람들처럼 여러 사람의 뜻을 물어 민주적으로 통치하실까? 아니면 홀로 주권을 행사하시며 자신의 뜻대로 통치 하실까?

신구약성경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왕국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이다(엡1:6, 12, 14).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개념으로 가득하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도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나?”라고 물었으며(마2:2) 그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선포하셨다(마4:17). 그래서 그분께서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 위의 명패에도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라는 글이 붙었다(마27:37).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즉 그들의 메시아로 오셔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을 그들에게 제시하셨으나 배척을 당하시고 결국 유대인들의 왕으로 돌아가시면서 새로운 언약 즉 신약을 여셨다. 그러므로 왕국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 그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다.

흠정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여(막1:1, 14)

유대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런 것을 무시하며 진실을 가리고 있다.

개역: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막1:14)

이렇게 왕국이 중요하므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언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구절을 개역성경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번역하고 있다.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인데 과연 그 당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너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때가 되었다고 선포하신 것일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흠정역: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6:10).

개역: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사실 개역성경으로는 이 구절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 개역성경이 '나라'로 번역한 그리스어 '바실레이아'는 왕국이며 여기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왕국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실제로 땅에 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왕국 즉 '하늘의 왕국'이다(마4:17). 이 하늘의 왕국은 대언자 다니엘을 통하여 이미 오래 전에 예언된 왕국으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세우시는 왕국이다.

흠정역: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단2:44).

예수님께서 바로 이 왕국을 유대인들에게 제시하셨으며 결코 우리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을 제시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왕국을 의도적으로 거부했고(마23:37-39) 이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공홍이 전해지게 되었다(롬11:30-31).

한편 예수님의 재림 전에 선포될 복음도 천국 복음이 아니고 바로 왕국의 이 복음이다(마24:14).

흠정역: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24:13-14).

위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목숨을 내걸고 주님께 헌신하는 자가 아니고 세상의 끝까지 견디는 자를 말한다. 즉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 가운데 믿음으로 7년 환난기를 통과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이들은 로마서 11장 26절 말씀 즉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른 뒤에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성취될 때에 구원받는 자들이다.

그래서 7년 환난기에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왕국의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고 그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땅에 강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신다. 그러므로 선교단체나 교회 등이 마태복음 24장을 문맥에 상관없이 취해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르지 못하다. 이것은 후천년주의에서 나온 발상이며 성경은 이런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물론 선교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문맥에 맞지 않는 구절을 취해 내 목적에 맞도록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처음부터 이 왕국의 도래가 가장 큰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분께 가장 먼저 왕국의 회복에 대해 물었다.

흠정역: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하매(행1:6)

개역: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나이까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 구절을 또 다시 오역하여 그 의미를 완전히 가려 버렸다. 이런 번역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를 전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 주류를 이룬다. 한국 성도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늘의 왕국의 설립과 특히 천년왕국의 도래 등에 대해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학자들로부터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어려서부터 잘못 번역된 성경을 읽고 그것으로 말씀을 공부하므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 뜻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처럼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성도들이 대부분의 구절을 ‘영적으로 비유로’ 해석한다. 성경을 - 특히 구약성경을 - 읽으면서 그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하나님의 치리가 이루어지는 사실로 대하지 않고 다 나하고 상관이 있는 ‘영적 QT 재료’로만 사용하기에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심오한 관이 형성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왕국을 세우시고자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무엇보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 이런 원대한 계획안에 사람의 구속(救贖)이 들어 있고 마귀의 파멸이 들어 있다. 결코 사람의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기존 한글 성경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성경에서 왕국으로 번역된 ‘kingdom’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모두 342회 나오며 이것은 원래 왕권(kingship)을 의미했으나 후에는 주로 왕이 다스리는 통치 체제 즉 왕국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런 중요한 단어를 ‘나라’나 ‘천국’ 등으로 일관성 없게 번역했으므로 개역성경으로는 성경의 핵심 주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핵심 주제를 보여 주는 이 단어는 단지 여호와와 그의 증인들의 전용 용어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한편 왕국의 이해가 부족하므로 인본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절을 악용하여 천국이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고 주장하며 인본주의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개역: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눅17:20-21)

그런데 여기의 너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예수님께 질문한 바리새인들이 아닌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까지 하신 바리새인들 안에 - 혹은 그들의 마음 속에 -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 말인가? 여기 나오는 나라 역시 왕국이다. 이것을 왕국으로 번역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으며 그 결과 자연적으로 문맥에 전혀 맞지 않는 영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왕국이 성립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왕이 있어야 한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왕으로 너희 가운데 와서 거하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그들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신다.

결론적으로 ‘왕국’(kingdom)을 ‘천국’(heaven) 혹은 ‘나라’(country)로 바꾸는 것은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를 완전히 가려 성도들의 성경 이해를 가로막는 심각한 폐해를 낳는다.

- 정반대를 기록함

욥은 4000년 전에 메시아의 재림을 말하면서 자신의 부활까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자신의 ‘육체 안에서’ 즉 ‘육체를 입고’ 하나님을 눈으로 볼 것을 확신하였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런 중요한 구절을 ‘육체 밖에서’라고 정반대로 기록하였다.

흠정역: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 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내 살갓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욥19:25-26).

개역: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 십일조를 삼 일만에 바치는가?

개역성경은 NASB 등과 같이 십일조를 삼 일만에 바치라고 요구한다.

개역: 너희는 벤엘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삼 일마다 너희 십일조를 드리며(암4:4)

과연 성경에 십일조를 삼 일마다 드렸다는 기록이 있는가? 신명기 14장 28절과 26장 12절 등은 분명히 삼 년마다 드리는 십일조가 있다고 말한다.

흠정역: 너는 삼 년이 끝날 때에 그 해 소출의 십일조를 다 가져다가 네 성문 안에 저축하여(신14:28)

그러므로 아모스 4장 4절은 킹제임스 성경처럼 되어야 한다.

흠정역: 벤엘에 가서 죄를 짓고 길갈에서 범죄를 크게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물을, 삼 년 뒤에 너희 십일조를 가져오고

- 일천 번제인가, 천 개의 번제 헌물인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린 후에 지혜와 부와 명예를 얻게 되었다고 해서(왕상3:4, 13) 요즘 한국 교회에서는 일천 번제가 유행하고 있는데 그 골자는 천일 동안 매일 일정한 액수의 돈을 바치고 기도하는 것이다. 과연 이런 일이 성경에 근거한 것일까? 과거에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했다고 해서(단10:2-3) 지금 교회마다 ‘다니엘 작정 21일 새벽기도’를 하고 있고 또 부흥회가 유행하던 시절에는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으므로 자기도 40일 동안 금식해서 능력을 받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선 적이 있는데 이제 또 여러 무지한 목사들이 무지한 양떼를 ‘일천 번제’로 끌고 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솔로몬은 결코 천일 동안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

개역: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왕상3:4)

흠정역: 왕이 기브온에서 희생물을 드리려고 거기로 갔으니 이는 그것이 큰 산당이었기 때문이더라. 솔로몬이 그 제단 위에 번제 헌물 천 개(a thousand burnt offerings)를 드리니라.

솔로몬이 기브온으로 간 이유는 그 당시 그곳의 산당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곳의 산당만이 유일하게 천 개의 번제 헌물을 일시에 수용할 수 있었다. 천일 동안 매일같이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성경과도 맞지 않고 이치에도 맞지 않다. 어떻게 왕이 왕좌를 버리고 떠나서 근 3년 동안 번제만 드릴 수 있었겠는가?

솔로몬의 기사를 가지고 천 번 번제를 드렸다고 해석하게 된 데는 무엇보다도 개역성경의 공헌이 지대하다. 개역성경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각종 헌물을 제사로 처리해서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여기 나오는 ‘burnt offering’은 원래 ‘태우는 헌물’이다. 하나님께는 ‘태우는 헌물’ 즉 ‘번제 헌물’을 드리지 ‘번제’ 즉 ‘태우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 경우 ‘burnt offering’ 대신 ‘burnt sacrifice’라는 말이 사용되곤 했는데(레1:3, 9, 10, 13, 14, 17 등 18 곳) 이것은 곧 ‘태우는 희생물’을 뜻한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것을 다 번제라고 번역했고 그래서 개역성경으로는 하나님께 희생을 드린다는 개념을 찾기 어렵다. 그 결과 솔로몬의 기사에서도 태우는 희생물 천 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천 번 드린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14. 지옥인가, 음부인가?

마귀는 지옥을 숨기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지 않으면 음부에 갑니다.” 혹은 “스올에 갑니다.”하면 알아들을 사람이 있겠는가?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죽어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과 지옥으로 갔으며(눅16:19-31) - 이 구절의 음부도 음부가 아니고 지옥임 -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낙원에 있던 사람들은 하늘 즉 천국으로 옮겨졌으나(엡4:8-10; 고후5:8; 12:2-4; 히11:40) 지옥은 여전히 지옥으로 남아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죽은 사람은 곧장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

지옥은 성경에 54회 나오는데 개역성경은 이 중에 구약에 나오는 31번의 지옥을 모두 스올로 번역했고 신약에서도 13번만 지옥으로 번역하고 나머지는 음부로 번역했다. 그렇다면 스올 혹은 음부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말 큰 사전은 음부는 저승인데 저승은 ‘죽은 혼령이 가서 사는 세상으로 구천, 유명’이라고 말한다. 즉 개역성경은 번역자들의 사머니즘으로 인해 불교 용어와 개념을 도입하였다.

개역: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잠15:11)

개역: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잠27:20)

이런 이교도 사상이 개역성경에 그대로 반영되어 교리와 신학에 참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해 흠정역성경은 정확하게 ‘지옥과 멸망’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개역성경의 번역자들은 이에서 그치지 않고 지옥의 본질을 성경에서 제거해 버렸다.

개역: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막9:45)

흠정역: 만일 네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내버리라. 절뚝거리며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곧 걸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니

지옥은 결코 불이 꺼지지 않는 무서운 곳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흠정역: 거기서는 그들의 별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막9:44, 46, 48).

너무나 중요한 진리이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44, 46, 48절에서 연거푸 이 사실을 강조하신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44, 46절은 생략했다. 단 한 번만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판단한 것이다. 예수님은 중요한 것을 강조하실 때는 늘 반복을 하셨다.

흠정역: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또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3:5).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우리 주님은 ‘진실로 진실로’라고 강조하셨다. 마찬가지로 지옥에 빠지는 것 역시 치명적이므로 그분께서는 연거푸 세 번이나 지옥의 실상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가지 말 것을 촉구하신다. 그러므로 44, 46절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참고로 영어의 지옥 즉 ‘hell’은 ‘감추다’ 또는 ‘덮다’를 뜻하는 앵글로색슨어에서 유래한 말로서 1차적으로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지하 세계’를 뜻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 지하 세계에서 악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곳’을 뜻한다.

Hell: The abode of the dead; the place of departed spirits; the infernal regions or lower world regarded as a place of existence after death(옥스퍼드 영어사전)

그러므로 한자의 ‘지옥’(地獄) 즉 ‘땅의 감옥’이란 표현은 아주 적절하다. 바벨탑에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말 성경에 아주 근사한 용어를 허락해 주셨다. 지옥이 땅의 중심부에 있음을 성경이 말하지만 현대판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이성을 따라 이것을 믿지 않는다.

흠정역: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중심부에 있으리라(마12:39-40).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중심부에 가셨다가 부활하셨다.

흠정역: (다윗이)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행2:31).

그러나 개역성경은 여기서도 지옥을 음부라고 하여 그 의미를 알 수 없게 만들었다.

개역: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15. 믿음인가, 행위인가?

● 구원받기가 어려운가?

만일 사람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면 기독교나 다른 종교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가르친다(롬3:23). 그런데 개역성경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본에 근거하였기에 자꾸 행위로 어렵게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친다.

개역: 애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어떻게 어려운지(막10:24)

그러나 바른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흠정역: 애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도다!

● 과정 신학

믿는 이들의 구원은 한순간에 일어나는가? 평생의 과정인가?

개역: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벧전 2:2)

흠정역: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새로 태어난 신자들이 먹어야 할 순수한 젖이 무엇인가? 흠정역 성경은 그 젖이 바로 성경 말씀임을 보여 준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구원으로 자라나야 한다고 말함으로 천주교회의 평생 행위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종교 체제 하에서는 사람이 평생토록 죄의 종이 되어 사제의 말에 순종해야 구원을 얻는다.

개역성경의 행위 신학은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잘 드러난다.

개역: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요3:36)

흠정역: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 개역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축소시킬 수밖에 없다.

흠정역: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롬11:6).

개역: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삭제하였는가?

하나님의 선물 즉 구원은 거저 받는 것인가, 값을 치르고 받는 것인가?

흠정역: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the free gift)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롬5:15)

개역: 그러나 이 은사(the gift)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거저' 주신다고 기록하지만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본에 근거한 개역성경은 NIV 등과 마찬가지로 '거저'(free)라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삭제했다(롬5:16; 5:18에서도 마찬가지임). 이 단어가 이 구절의 핵심이 아닌가?

● 내 몸을 쳐야 하는가?

고대로부터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 몸을 혹사시키거나 참기 어려운 고행을 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이집트의 이시스, 로마의 키벨레 그리고 에베소의 다이아나같이 피에 굶주린 여신들을 위해 사람들이 피의 제전을 열었음을 알고 있다. 그래서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천주교회의 수도사들 가운데는 자기 몸을 극도로 상하게 한 사람들이 많았고 루터 같은 경우도 이런 일을 하려고 애쓰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영적으로 높은 상태에 다다르기 위해 고행이 필요하다는 이교도들의 교리를 지지한다.

개역: 내가 내 몸을 쳐(I beat my body)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고전9:27)

한국 성도들에게 보상 심리를 허용하면서 많은 은혜를 끼친 이 구절은 실제로 나를 때리라는 것이 아니다. 이 구절에는 ‘치다’(beat)라는 뜻을 갖는 그리스어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후포피아조’(hupopiazō)이며 실제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흠정역: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도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에서 바울 사도는 육체의 정욕들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으며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자기를 치는 행위’ 즉 자학 행위는 특히 왕상18:28에서 잘 드러나는데 거기서 바알의 대언자들은 자기들의 방식에 따라 자기 몸을 자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결코 성경의 개념이 아니다.

흠정역: 참으로 이런 것들은 의지대로 경배하고 자기를 낮추며 몸을 경시하는 데는 지혜가 있는 것같이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가치가 없느니라(골2:23).

● 거세해야 하는가?

그런데 자기 학대로 만족하지 못한 자들이 이제는 신체의 일부를 잘라 내는 거세(去勢)를 행하려 하며 개역성경은 이것을 지지하고 있다.

개역: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갈5:12)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지방의 신자들을 유혹하던 거짓 대언자들이 그곳의 신자들과 교체하는 것에서 끊어지기를 원했으며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흠정역: 나는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아예 잘려 나가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에서 분명히 바울 사도는 그곳 성도들이 아니라 ‘그들을 어지럽히는 자들’이 잘려 나가기를 즉 교체에서 단절되기를 원하였다. 누군가가 자기 몸을 자해하기를 원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도리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뉴에이지와 고대 신비주의 관습이다.

그런데 이러한 신비적인 가르침들로 인해 현대 역본들의 기반이 된 ‘부패된 그리스어 신약 사본’을 편집한 장본인인 오리젠은 스스로 자기의 몸을 잘라 내는 거세를 행했다.

● 열심을 내면 되는가?

우리의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까? 개역성경은 그렇다고 한다.

개역: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요4:24)

우리말 큰 사전은 ‘신령’이란 ‘신기하고 영묘한 것’이고 ‘진정’이란 ‘거짓 없이 참되게’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신기하게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는 말인가? 많은 교인들이 이런 구절에 은혜를 받고 열성으로 지성을 내어 예배를 드린다. 기독교는 “지성이면 감천이다.”를 모토로 하는 샤머니즘이 아니다. 인격 대 인격이 만나는 관계가 복음의 핵심이요 전부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사람이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

흠정역: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너무나도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간의 열심으로 착각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16. 신약인가, 구약인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서는 구약(Old testament) 시대에 율법 아래에서 나서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신약(New testament) 시대를 여셨다.

흠정역: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롬10:4).

흠정역: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갈 4:4)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순간부터 신약시대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신약시대는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이다. 신약이란 '새로운 언약'을 이야기하며 이때의 언약이란 영어로 'covenant'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영어 성경책을 보면 한결같이 신약, 구약 할 때의 '약'이 'covenant'가 아니라 'testament'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testament'를 우리에게 전해 준 성경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다.

'Testament'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처음 나오며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14장 24절, 누가복음 22장 20절 등에도 나온다.

흠정역: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마26:28).

KJB: For this is my blood of the new testament, which is shed for many for the remission of sins.

여기서 '새 상속 언약'은 'New testament'이며 이는 곧 주님께서 '옛 상속 언약' 즉 구약(Old testament)을 폐하고 신약을 여심을 뜻한다.

히브리서 9장에 'Testament'의 뜻이 정의되어 있다.

흠정역: ¹⁵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New testament)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죄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Promise of eternal inheritance)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¹⁶상속 언약(Testament)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Testator)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¹⁷상속 언약은 사람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느니라.

먼저 15절에서 히브리서의 저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구약시대 성도들의 죄가 구속되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것은 곧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는 구약 성도들의 죄가 잠시 덮여졌으며 완전히 해결되지 아니하였음을 보여 준다.

흠정역: 내가 공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출34:7).

완전한 희생 헌물이신 예수님의 완전하신 단번 속죄로 말미암아 신구약 성도들의 죄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상속 유업의 언약을 주시므로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가 되신다. 여기서 'Testament'를 '상속 언약'으로 번역해야 하는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16-17절이 이것을 확증해 준다.

개역성경도 이 부분만큼은 그냥 언약으로 할 수 없어 교육지책으로 '유언'이라 번역했다.

개역: ¹⁵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¹⁶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¹⁷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이렇게 번역을 하면 15절의 새 언약과 16, 17절의 '유언'이 도저히 같은 말임을 알 길이 없다. 왜 갑자기 여기서 유언이 나오는지 알 사람이 있겠는가? 개역성경 번역자들이 공역지책으로 '유언'이라 번역했지만 이런 식으로는 말씀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그들은 15절의 'inheritance' 즉 '상속 유업'을 '기업'이라 번역하여 이런 의미를 더더욱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다.

17. 번역인가, 음역인가?

- 갈보리와 해골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갈보리 언덕을 알고 있다. ‘갈보리’라는 말은 유일하게 킹제임스 성경의 누가복음 23장 33절에만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 중요한 단어를 ‘해골’로 바꾸어 버렸다.

흠정역: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개역: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교회

교회

교회(church): 총 77회

마16:18; 18:17: 미래 사건(will, shall)

행2:47~계3:14: 신약 교회

교회들(churches): 총 37회, 행9:31~계22:16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건물은 기도하지 않는다(행12:5).

건물은 사람을 영접하지 않는다(행15:4).

건물은 기뻐하지 않는다(행15:22).

건물은 핏박 받지 않는다(고전15:9).

건물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한다(계2:23).

교회는 어떤 목적을 위해 모인 사람들의 집회(Assembly)이다.

그들이 교회와 함께 모였다(행11:26, 중요 구절).

그들이 교회를 함께 모았다(행14:27).

모인 무리(Assembly, 행19:32).

교회에 함께 모인다(고전11:18).

은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인다(고전14:23)

초대 교회 성도들은 모였다(행2:42, 44, 46).

모이지 않는 교회는 성경의 용례상 교회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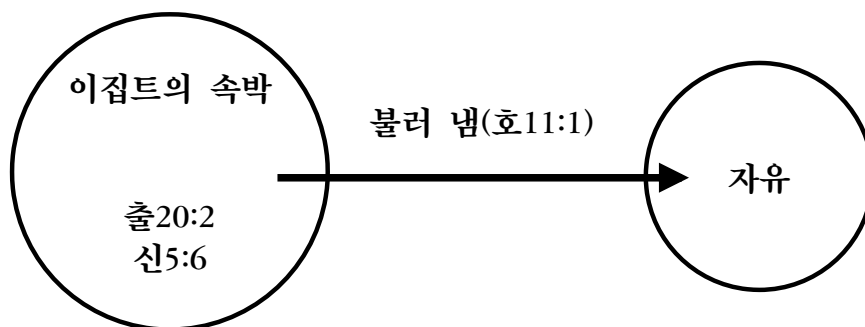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히10:25).

교회

그리스어 에클레시아(신약에 117회)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 집회(행19:32; 39)

구약의 이스라엘(행7:38)도 교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 즉 신약 교회는 아니다(마1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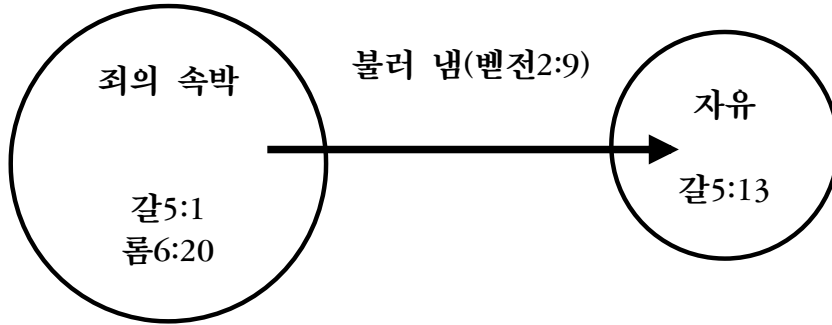
신약 교회

그리스어 에클레시아

특별한 목적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

~에서 나와(Out of) ~로 들어간 사람들(Into)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요일3:14)



교회를 부르신 목적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롬8:28-30).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고전1:2)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고전 1:9).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 내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므온이 밝히 말하였으니(행15:14)

교회의 소유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마16:18).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딤후3:15).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 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행20:28).

교회에 속하는 방법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고전12:13).

성령 침례가 필수적이다.

성령 침례는 오순절 사건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다(마3:11; 행1:5; 행11:15-16).

물 침례는 성령 침례에 대한 증언이다.

고전12:13은 물 침례가 아니다.

고전12:13은 신약 교회의 교리이다.

지역교회와 보편적 교회

신약 교회의 의미로 쓰인 교회의 경우 대부분 한 지역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를 뜻한다(고린도, 에베소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전 우주적인 교회' 즉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을 뜻하는 교회도 몇 군데 발견된다(히12:23).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아래 두시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엡1:22-23). 마16:18의 '내 교회'도 보편적인 교회이다.

지역교회와 보편적 교회

보편적 교회를 많이 강조할 때의 문제

- 지역 교회의 약화
- 에큐메니즘 문제

지역 교회만을 강조할 때의 문제

- 물 침례를 통한 지역 교회 회원권
- 목사의 권위 증대
- 교리의 왜곡

교회의 기능

엡4:11-12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And he gave some, apostles; and some, prophets; and some, evangelists; and some, pastors and teachers;

For the perfecting of the saints, for the work of the ministry, for the edifying of the body of Christ:

목사 겸 교사는 누구인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는 자

섬기는 일(사역)을 하게 하는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자

목사와 교사는 주님이 지역 교회에 준 선물(gift)로서 성도들을 준비하고 훈련시켜 할 일을 하게 하는 자이다.

목사는 몇몇 사람들이 주장하는 영적 은사(gift-고전12:4-11)가 아니다.

교회에 모이는 목적

바르게 준비하고 훈련을 받아 완전하게 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모인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반드시 훈련과 교육이 있어야 한다.

교제 중심이 아니고 교육과 훈련 중심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와 목사가 필요하다.

목사와 양들(평등과 동등)

특히 독립 교회는 이 점이 결여 되어 있다.

지역 교회

불신자를 위한 모임이 아니다.

신자를 위한 모임이다(엡4:12).

주대상	부대상
성도(행20:28, 32 중요) Soul building station	불신자 Soul winning station

지역 교회

복음 선포 중심이 아니다.

말씀 선포 중심이다(딤후4:2).

주요 임무	부차적 임무
성도들을 먹이는 일 복음을 불신자에게 가져가도록 훈련시킴 Preach the word!(행20:27) Indoctrination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불신자를 복음으로 초청함 Preach the gospel Evangelism

지역 교회

구원이 최종 목표가 아니다.

성도를 세우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골1:28; 엡4:13-15)

주요 목표	부차적 임무
양육과 훈련 성경 전체를 선포함(행20:27; 마28:20) 어떻게 살 것인가?(딤후3:17)	구원 구원 메시지(요3:16 등) 어떻게 구원받는가?

지역 교회 요약

성도 양육 장소이다(고전14:26).

실제로 이단들이 성경적인 지역 교회 개념을 가장 바르게 이행하고 있다.

불신자들이 교회에 오면 다음을 보아야 한다.

건강한 유기체

성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와 경외감

구원의 메시지

고전14:24-25

감독과 장로

감독과 장로는 동일하다(딤후1:5-7)

임명을 받아야 한다.

장로: 사람 자체(Elder)

감독: 그 사람의 직무(Office), 지역 교회 감독

장로: 목자=목사, 감독자=감독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벧전5:1-2)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셨나니(행20:28)

공통 요구 조건

먹이는 능력(가르치고 설교하는 능력)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지니라(딤후5:17).

가르치는 재능(딤후2:2)

읽고 권면하고 교리로 가르치는 재능(딤후4:13)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진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진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려 함이라(딤후1:9).

지적 능력과 언변의 능력이 없으면 힘들다.

인격이 동반되지 않으면 힘들다.

Professional, 전임 사역자의 필요성

목사

목사에 해당하는 그리스말은 '포이멘'이며 이것은 18군데에서 모두 목자로 번역되었다(마9:36; 막6:34; 눅2:8; 요10:11; 히13:20; 벧전2:25 등).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자신의 교회를 위해 목사 즉 지역 교회의 목자라는 선물을 주셨다(엡4:11).

목사는 감독으로 교회를 감독하며(빌1:1) 장로로 위엄 있게 치리하고(딤후1:5) 목자로 꼴을 먹이는 의무를 수행한다(엡4:11).

교회 역사: Bishop에서 Pastor로 바뀌는 과정

그리스도의 몸(고전12)

사람의 몸

핏줄은 10만 킬로미터

심장은 매일 5000리터의 피를 내보낸다.

200여 개의 뼈

600여 개의 근육

신경: 1초에 100미터 속도

뇌: 우주에서 가장 우수한 컴퓨터

또 다른 몸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아래 두시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엡1:22-23).

교회: 그리스도의 몸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고전12:27).

지체: member

한 몸, 여러 지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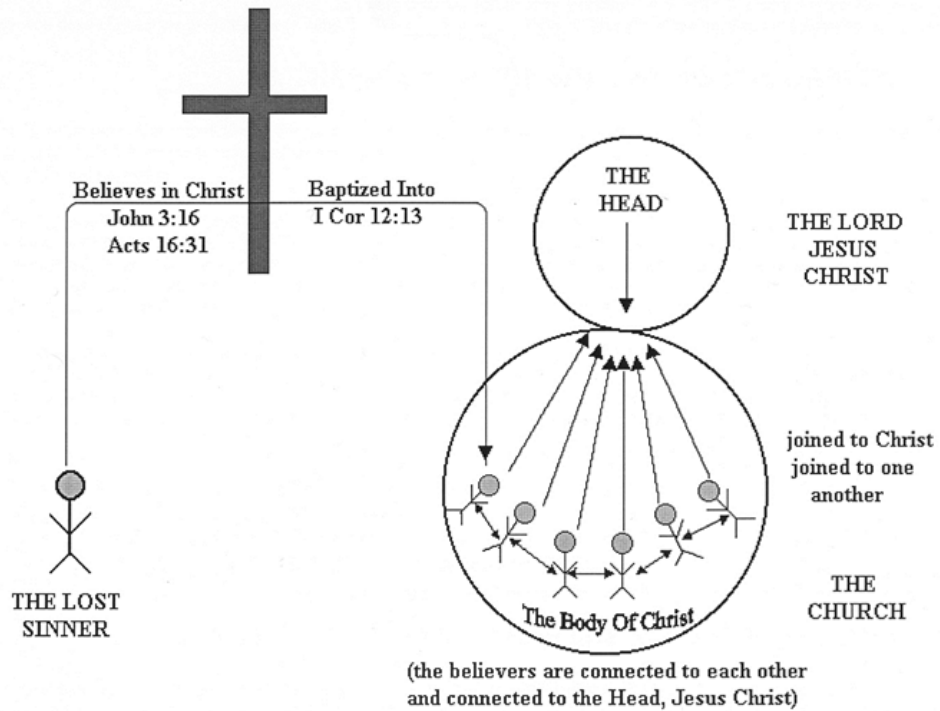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고전12:12).

지체가 되는 방법

성령 침례(고전12:13)

그리스도의 몸(고전12)



모든 지체가 살아 있다.

요일5:12; 같은 성령(롬8:9)

머리가 명령한다.

골1:18

모든 지체의 은사와 기능이 다르다.

고전12:15-16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하고 중요하다.

고전12:21

한 지체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고전12:26

예배

예배(경배)

크리스천 믿음의 중심

예배 없이 살 수 있나? 없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결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의 표현

하나님께 대한 찬미와 봉사

예배의 위기

일주일에 겨우 한 번 참석해 줌

저녁(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경시(무시)

개인적인 예배 경시(무시)

10-20년 뒤 우리 자녀들의 앞날?

잘못된 예배 개념

일반 교회

너무 예배가 많다(새벽, 주일, 수, 금요일).

기도회, 재정 회의, 각종 모임의 감초 격 예배

축하 예배 난무

취임 예배, 학위 취득, 개업, 졸업, 입학, 회갑, 돌

신약 용어 ‘프로스쿠네오’는 ‘꿇어 엎드림’을 뜻함.

국내 독립 교회(침례 교회, 형제 교회 등)

너무 예배가 없다.

예배 본질 오해 경향

예배 경시 풍조, ‘교제 중심의 예배(?)’

예배의 정의

국어 사전

경례하고 절함; 신이나 부처 앞에 경배하는 의식; 종교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의식이 있음; 신을 숭배하면서 그 대상을 경배하는 행위 및 그 양식.

Worship

Worth <가치, 존경> + Ship <어떤 상황 등을 유발시키다>

가치가 있는 대상을 인정한다.

독일어 ‘고테스딘스트’(Gottesdienst)

Service to God

하나님을 섬김

성경의 예배 개념

구약성경

다라쉬: ‘seek’, 구하다, 찾다(스4:2)

아바드: ‘serve’, 섬기다, 일하다(삼하15:8), 공식 예배

사가드: ‘worship’, 납작 엎드리다(사66:23)

신약성경

리투르게오: ‘minister’, 봉사(행13:2), 리터지(예전)

세보마이: ‘worship’, 존경하다(마15:9)

라트레이아: ‘service’, 지위가 높은 자를 섬김(롬12:1)

트레스케이아: 'worship', 종교적 예배, 신앙심(골2:18), 천사 숭배
프로스쿠네오: 'worship', 무릎을 꿇어 엎드리다, 59회
최상의 존재인 주님께 꿇어 엎드려 존경과 경의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며 섬기는 것

예배 요약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존경과 경의를 드린다.

예배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자 하는 예배자의 간절한 소원의 표출 행위이다.

우리 자신, 우리 마음, 우리의 소유물, 기도, 간구를 드린다.

이렇게 먼저 드린 이후에 주님의 약속과 위로와 책망과 권고 등을 받고 새로운 각오로 세상을 향해 나간다.

예배 순서, 헌금

예배의 중요성

예배가 중요한 첫째 이유는 성경이 예배에 대해 매우 자주 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백 번 거듭해서 예배라는 주제를 강조한다.

십계명 첫 번째 명령 강조(출20장)

하나님의 표준, 원리, 지침을 명령, 법규, 법령, 법률 및 신조의 형태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20장 2-6절까지의 제1계명이다.

출애굽기 20장 2-5절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네 하나님이라.(구원의 하나님)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예배의 하나님) 나 곧 주 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순서 중요

구원(1회) 다음에 예배(끝이 없음)

성도로 삼은 목적: 출19:5-6; 신7:6-11

성막의 설립(출25장)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할 처소

예배의 장소, 절차 등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모든 수치, 기준, 설비를 논하는 데 7장(출25-31장, 총243절)을 할애함.

은 우주를 비롯한 삼라만상의 창조를 묘사하는 데는 불과 1장(31절)이 할애됨.

성막: 뜰과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 언약궤, 금홍의 자리(속죄소)

금홍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출25:21-22)

성막: 예배의 중심

성막 주위의 진영(민1:52-2:2)

40년 광야 방랑생활

성막이 움직이는 대로 이동함(출40:34-38)

성막 주변: 제사장들, 레위인들, 열두 지파

제사장들: 예배

레위인들: 성막 봉사

이제 구원 받은 자의 의무를 보여 주는 2장 5절이 나온다(9절 참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인 산 돌들로 만든 집에서 사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는 영적인 희생 예물을 드려야 한다.

영생은 예배에 의해 정해진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숭배(경배, 예배)한다.

 푹어 엎드린다.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

예배는 인생의 핵심이다.

예배는 생활의 첨가물이 아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그분께 예배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

시간과 영원이 예배의 본질에 의해 결정된다.

잘못된 예배 1

거짓 신들에게 예배하는 것:

 세상의 물질적인 신(욥31:24-28)

 하늘의 초자연적인 신들(신명기 4:14-19)

잘못된 형태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형상으로, 물질적인 표현으로, 우상으로, 또는 자신의 사고의 결과로 전락시키는 것
 자기 방식대로 참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나답과 아비후(레10:1-2)

 사울(삼상13:8-14절)

 웃사(삼하6:1-9; 대상13:9-14; 15:12-15)

 바리새인들(마15:1-9; 23:23-28)

그릇된 태도로 참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사1:11-20; 호6:4-7; 암5:21-27; 말1:6-14; 3:13-15; 막7:6

헛된 예배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숫양의 번제 헌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즉 수소나 어린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에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하는 것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사1:11-13).

헛된 열심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롬10:1-3).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롬10:4).

바른 예배자

누가 주의 산에 오르리요? 누가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서리요? 깨끗한 손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 곧 헛된 것을 향해 자기 혼을 들지 아니하고 속임수로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그가 주께 복을 받고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받으리니 이것이 그분을 찾는 자들의 세대요, 오 야곱아, 네

얼굴을 찾는 자들의 세대로다. 셀라(시24:3-6),
깨끗한 마음, 올바른 영(시51:10)
상한 영, 통회하는 마음(시51:17)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으로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히12:28-29).

하나님의 왕국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받으실 만하게 그분께 예배함으로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만드신 하나님께 은혜롭게 반응해야 한다.

바르지 못한 예배자: 배은망덕한 자

참 예배를 드리려면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롭게 행하고(롬14장)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롬15:16)
필요를 따라 물질을 드리고(빌4:18)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며(엡5:8-10)
의의 열매로 충만하고(빌1:11)
경건하고 단정하며(딤후2:2-3)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어야 한다(히13:15-16).

공적 예배의 목적

주일의 공적 예배는 나머지 육일 동안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일을 고무시킨다.
우리는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의인들의 회중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백성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 바로 이곳에서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격려 받고 세상 가운데서 나눔과 의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일에 대해 격려와 도전을 받는다.
이러한 격려와 약속을 혼 안에 가진 채 '하나님의 복의 통로 혹은 대사'로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 위해' 밖으로 나간다(히13:16).
그리고 다시 모임에 돌아올 때 지속적인 감사의 마음을 갖고 충만하게 찬양하게 된다.

예배의 장애물 1

죄에 대한 진솔한 회개가 없는 마음
사무엘기하 12장: 밧세바와 간음하여 태어난 아이가 죽은 후의 다윗의 모습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주의 집에 들어가 경배하고 그 뒤에 자기 집으로 돌아오니라(20절).
다윗은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했다.
회개의 예배란 징벌의 와중에서도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죄를 고백하며 “나는 마땅히 받을 것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을 뜻한다.

예배의 장애물 2

비통한 환경 문제들
옴을 보면서 '받아들임의 예배'를 배울 수 있다(옴기1:20-22).
'받아들임의 예배'는 우리의 상황 - 지위, 경력, 노력, 배우자, 자녀 - 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사랑하는 자를 잃는 것, 자녀를 잃는 것, 직업을

있는 것, 질병의 고통 등)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저는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예배의 장애물 3

희생과 헌신이 없는 것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무르라. 나는 아이와 함께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취하여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들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창22:4-5).

그는 아들의 생명을 기꺼이 취하면서 여전히 그것을 예배로 보고 있다.

대가가 무엇이든지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

구원 초청, 죄, 회개, 예배의 순서

여자의 관심: 예배 장소(4:20)

예수님의 대답: 예배 방법(4:21-24)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in spirit and in truth)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한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지한 가운데 예배를 드렸다. 그들은 구약성경에서 모세오경만을 받아들여 영적인 지식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그들의 예배는 진리가 없는 열광주의 예배였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전부를 경전으로 삼고 있었다. 그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결핍되어 있었다. 바리새인들이 구제를 하고 금식을 하였지만 거기에는 마음이 갇혀 있지 않았다.

영과 진리 안에서 균형이 잡혀야 한다.

영 안에서 1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는 한 사건을 기대하며 이루어지는 믿음의 행위이다.

예배로 모이는 사람들이 예배 행위를 통해 기대하여야 할 한 사건은 무엇인가?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 즉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대하7:1-2; 11-12; 행2:47; 4:29-31).

예배로부터 얻게 되는 교훈과 감화와 교제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결과이어야 한다.

예배의 마지막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에 대하여 찬송과 헌신을 되찾는 것이다(창22:14; 28:16-22; 출15:1; 19:7-8 등).

영 안에서 2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며 예배를 드린다.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새롭게 알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이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예배는 결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나 부활 사건만을 기념하는 것일 수는 없다(천주교, 지방 교회 등의 만찬 예배의 문제).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교회는 이 세상의 단체와는 다른 신적인 기관이 된다.

교회는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해 부름 받은 기관이다.

교회는 예배의 깊이만큼 깊이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오늘날 교회의 세속주의는 예배의 실패에 기인한다.

교회와 예배

교회는 사회 개혁/변화의 매개체가 아니며 진리를 들을 수 있고 영적 교동이 있고 성령님과 사귀어 있는 곳이다.

영적 교동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또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예배의 정신으로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된다.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이 진리의 참 빛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도 예배 속에서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다.

사랑이 없던 사람들이 참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도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다.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를 통해서만 바뀐다.

따라서 예배가 영혼의 변화에 아무런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면 그것은 대단히 큰 문제이다.

참회가 있는가?

현대 예배의 문제: 죄의 참회가 없다.

구약시대 짐승의 희생물을 드리는 예배자

죽은 예배, 글자의 예배, 형식의 예배

삶과 예배가 분리되는 이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할까? 내가 번제 헌물과 일 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까? 주께서 수천의 숫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범죄로 인하여 내 만아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오 사람아, 그분께서 선한 것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미6:6-8)

예배 속의 성령님의 역사 1

예배는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시간과 공간을 자신의 구속사역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행위이다.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

‘정결케 하고 화목케 하는 임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잃었고 성별된 시간과 공간을 상실하였다.

예배: 하나님의 속죄의 행위를 통해 정결케 된 자신의 백성을 다시금 거룩한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예배는 또한 하나님을 필요로 하면서도 죄로 말미암아 그분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과 기쁨을 필요로 하면서도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다.

예배 속의 성령님의 역사 2

성령님은

죄와 하나님의 의와 심판에 대해 증언한다.

죄인의 마음에 일하심으로 변화가 생기게 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과 구원의 은혜를 통해 세상을 향해 주신 사명을

생각나게 하신다.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삶과 관계 있음을 고백하고 받아들이도록 만들어 주신다.

죄를 회개하게 하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불신자의 마음에 믿음을 심으시고 냉담한 사람의 마음에 영적 열심의 불을 지핀다.

무수한 예배 속에서 도무지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게 하고 그분의 성품에 대하여 감격하며 찬송하게 만든다.

예배 속의 성령님의 역사 3

성령님이 오셔서 예배자의 마음에 감화를 주시면 그의 영혼이 변화를 경험하고 그때에 그 사람의 예배 드리는 태도가 바뀌고 예배 드리는 방식이 변화되며 삶이 변한다.

성령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늘 듣던 진리에 대해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갖게 만들어 준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보다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게 된다. 불분명하게 받아들이던 지식들을 믿게 되는 것도 성령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가능해진다. 회중들이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를 자신의 영적 상태와 삶에 적용되게 된다.

예배 속의 성령님의 역사 4

성령님의 권능이 하나님과 설교자, 설교자와 회중, 회중과 예배 순서 사이를 지배해야 한다.

설교자의 변화가 생긴다(능력).

설교의 지평이 변한다.

설교에서 자유함이 생긴다.

예배자가 감동하는 일이 생긴다.

교회의 부흥이 생긴다.

성령 충만은 예배와 부흥의 필수 사항이다.

예배의 정의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다. 예배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응답이며 거룩하신 분의 나타나심에 대한 반응이다. 예배 가운데서 경외와 두려움과 기이함을 체험하는 것이 정상적이기는 하지만 요점은 우리가 무엇을 느끼느냐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창조적으로 그분과 연관 지으며 죄를 고백하고 이미 우리에게 나타난 은총에 대하여 감사하는 가운데 찬양과 경배로 그분의 임재에 반응한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거룩하신 분, 위대하시고, 엄위로우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권세와 선하심에 대하여 느껴진 관계이다.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경배하고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며 하나님을 경험한다(Arie C. Leder).

예배와 정서 1

정서(Affection): 영으로 드린 예배의 결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에는 감화가 있다.

영 안에서 드리는 참된 예배 속에는 반드시 정서적 요소가 있다.

성령에 의한 거룩한 감화가 있으면 반드시 정서가 깃든다.

잘못된 감정주의의 위험을 경계한 나머지 신앙에서 아예 감정적인 요소를 천시하는 것은 죄악이다.

영적인 은혜는 반드시 거룩한 정서를 동반한다(에드워즈).

예배와 정서 2

예배자들에게 인위적으로 정서적인 자극을 주거나 충격을 주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에는 항상 경건한 정서의 갱신이 뒤따른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고 그분의 임재 앞에서 후회, 탄원, 열정, 두려움, 근심, 신비, 경외, 사랑,
 아픔, 절망, 신뢰, 고난, 목마름 같은 정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는 반드시
 정서의 갱신이 예배의 결과로 나타난다.
 예배의 이러한 효과는 바로 예배 안에 임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예배에서 십자가의 중심성

성령님은 우리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하신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만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깨닫게 해 주는 시간은 많지 않다. 영적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과거의
 사건으로 우리의 눈을 돌린다.
 이처럼 살아서 거룩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게 해 주는 은총의 근거가 무엇인가?
 늘 울어도 할 수 없는 죄인들을 예배 중에 찾아오셔서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의
 근거는 무엇인가?
 아무 선한 것이 없는 누추한 죄인들을 용납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은 무엇인가?

예배 핵심: 십자가의 구속사역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과 재림
한 교회가 드리는 예배의 영적 깊이는 예배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식하고 느끼는 정도에
 비례한다. 따라서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곳에서는 영으로 예배 드리는 일이 불가능하다.
 위대한 부흥의 역사는 부흥된 예배에서 나온다.
 한 시대의 각성을 알리는 효시도 항상 십자가와 복음의 진수를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십자가에
 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으로 인해 감격한 사람들에게 의해 부흥이 이루어졌다.

예배 핵심: 그리스도

예배자는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한다.
 예배를 올바른 방식으로 드린다면 거기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
 사건에 대한 회상이 있고 감격이 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인정해야 한다.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린 채 신앙 생활하는 이유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복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진리의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진리의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오는 진리가 있다.
 이 진리는 그분의 말씀에서 나온다.
 예배는 그분의 진리를 드러내는 장이다.
그러므로 예배의 중심은 설교이다.

회당 예배: 설교 중심

출애굽 이후: 성막, 성전 중심의 희생 제사 예배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 회당 예배
 기독교 이전의 회당 예배에서도 성경을 읽고 읽은 바를 해석하거나 설명하는 일이 중심이었다.
 기독교 예배에서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것이 중요한 순서가 된 것은 유대인들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버가를 떠나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의 치리자들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람들이 형제들아, 너희가 백성을 위해 권면할 말이 있으면 하라, 하니(행13:14-15)

눅4:16-21

예배와 이해

예배는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엄위하심을 이해하는 행동이다.

영으로: 열(열정)

진리로: 빛(이해, 지식)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요17:3).

설교는 하나님에게 이르는 다리이다.

다리가 부실하면 건너지 못한다(혹은 힘이 든다).

다리의 종착지가 바르지 못하면 다른 곳으로 간다.

말씀 쇠퇴의 징조

형식/예전 중심

음악 중심

드라마 중심

조명/시설 중심(무대)

교제 중심

예배 시간 고정

설교: 예배의 핵심

진리를 선포해야 한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의 특징

정직하게 선포되는 성경 진리

예배자들의 겸손한 반응

그 위에 내리시는 성령의 축복

성도들의 의지적인 약속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책에서 명료하게 낭독하고 의미를 알려 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라.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울므로(느8:8-9)

예배와 설교 비유

거룩한 산을 오르는 사람

준비하고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 말씀을 듣고 무장한 채 다시 내려온다.

따라서 설교가 예배는 아니지만 예배의 중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 설교자가 없다면 바르게 예배드리는 일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가장 뛰어난 사람이어야 한다.

설교자는 이 일의 중대함을 알고 매진해야 한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누구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전해도 된다는 것은 예배의 본질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주장이다.

예배자의 태도: 백스터 1

첫째, 개인적으로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할 것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분명하고 확고한 가르침 아래서 살아갈 것

셋째, 부주의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지 말 것
 넷째, 설교 중 쓸 데 없는 생각이나 졸음으로 말씀을 놓치지 말 것
 다섯째, 설교에서 다루는 교리의 윤곽을 기억하거나 요지를 적을 것
 여섯째, 설교 중 영혼에게 중요하거나 관심사에 대해 답이 되는 내용들은 기록할 것
 일곱째, 집에서 기독교 교리를 공부할 것
 여덟째,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갈 때 설교 중에 들은 말씀을 묵상할 것
 아홉째, 설교 내용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물어볼 것
 열째, 알기 원하는 교리들을 다룬 좋은 책들을 읽을 것
 열한째, 지혜와 성령의 조명을 구하며 부지런히 기도할 것
 열두째, 알게 된 내용을 의식적으로 실천할 것

예배의 결과 1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시50:23).

삶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레10:3)
 그리스도인들이 깨끗하게 된다.

우리의 죄성 인식

정결하게 되려는 불타는 열망(시24:3-4).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또 내 안에
 조금이라도 사악한 길이 있나 보시고(시139:23-24)

예배의 결과 2

주님께 예배하고자 함께 모일 때 우리는 세워지고 강해지며 변화된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예배는 거룩한 기대와 함께 시작되고 거룩한 기대로 끝을 맺는다

초대교회가 예배를 드렸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다(행2:47).

그리고 그들은 온 도시를 완전히 그들의 교리로 가득 차게 했다(행5:28)

예배의 결과 3

불신자들이 구원 받는다.

예배하는 공동체의 심오한 증거는 어떤 단독적인 설교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친다. 예배하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고전14:23-25).

예배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인이 깨끗하게 되며 교회의 품성이 높아지고
 잃어버린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공적 예배 때 확인할 것들

진지하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가?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을 뵈으로써 갈급한 마음으로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려 하는가?

믿음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온전히 확신하면서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고 분명히 믿는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피 때문이라는 것을 확신하는가?

삶의 모든 죄를 처리하고 깨끗하게 나아가는가?

설교자: 최선을 다해 설교를 준비하는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약4:8)